



서울대인, 한마음으로 관악산을 오르다



제29회 흠커밍데이 겸 등산대회 대성황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0월 21일 5천명의 동문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흠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부터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접수를 마친 동문 가족들은 모교 성악

과 출신 吳鎭明(45-48)·故 李貞姬(49졸)·安亨一(47-50)·李慶淑(50-55)·朴魯慶(54-58)·朴忍洙(59-68)동문의 노래가

담긴 '고향 생각' CD와 기념배지를 비롯해 대회 일정 및 자연보호 캠페인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받았다.

이어 가족·동기·단과대별로 삼삼오오 모인 가운데 동아오츠카에서 제공한 음료와 과자를 맛보고 모교 재학생들의 인솔로 산행길에 올랐다.

(관련기사 3~5면)



徐圭祥(경제53-57)동문 가족의 즐거운 나들이: 좌로부터 아들(서영진), 며느리(김승희), 손녀(서희원), 손자(서원준), 徐동문, 부인(이숙규), 딸(서정은).



본회 林光洙회장(右)이 관악수목원을 잘 보존시켜 달라며 李宇新원장에게 수목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사진 李五峰논설위원)

노리나무광장

춘추시대의 일이다. 관중이 수레를 타고 요산을 지날 때다. 흠바지에 부서진 삿갓을 쓴 한 남자가 소를 먹고 있었다. 그 남자는 쇠뿔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넓고 넓구나, 白水여!”

‘군후 오시와 나를 부르시니(君來召我) 내 장차 자리에 안정하리라(我將安居)’로 끝나는 시다. 벼슬을 구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관중이 불러 물어왔다. 寧戚이라는 위나라 사람으로 시국을 논하는 것이 청산유수였다. 관중은 주군인 제환공에게 추천하는 글을 써줬다.

며칠 뒤 제환공이 그곳을 지났다. 영척은 또 쇠뿔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창랑의 물에 하얀 돌은 빛나는데(滄浪之水白石爛) 그 속에 길이 적반이나 되는 잉어가 있도다(中有鯉魚長尺半)…” 자신이 큰 잉어이니 썩달라는 말이다. 환공의 면접을 통과한 영척은 중용됐다.

요즘으로 치면 영척의 쇠뿔은 훌륭한 자기광고 도구였던 셈이다. 과거제도가 없던 춘추전국시대의 구인구직은 그런 식이었다. 제자백가도 결국은 자신을 잘 알리기 위

해 다닌 유세자들이다.

그와 대조적인 모양이 三顧草廬다. 초의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 세 번이나 초려를 찾았다. 이런 ‘초빙’ 방식이 제갈량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제환공은 아인 동곽을 만나기 위해 다섯 번이나 찾아갔다고 한다. 주 무왕도 강태공을 모시기 위해 직접 찾아갔다. ‘태공망’이라는 강태공의 이름도 무왕이 바라서(望) 모셔왔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모셔간 사람, 받아준 사람

金 鎮 國

중앙일보

국제부문 에디터

본보 논설위원



쇠뿔을 두드리며 나를 썩달라고 자기를 파는 건 아무래도 점잖지는 않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정을 해서 나섰노라고 하면 품이 난다.

그렇다고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모셔간 사람 행세를 하려면 웃음거리가 된다.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 멀고도 어려운 길을 돌아 왕위를 ‘선양’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나 牛意馬意까지 동원하며 대통령직을 苦辭하는 모양을 만든 李承晩 전 대통령은 모셔간 사람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크게 보면 세상에는 이렇게 ‘모셔간 사람’과 ‘받아준 사람’이 있다. 옛날에야 자기능력을 알릴 길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니 영척의 행동을 경망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요즘처럼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세상에 굳이 그런 처신을 해야 할까.

최근 한 대선 후보 진영에는 많은 사람이 북적이다. 비슷한 재능을 가진 사람, 비슷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왜 저리도 많을까 의아하다. 그러나 그 후보는 모셔간 사람과 받아준 사람을 분명히 가른다고 한다. 꼭 필요한 사람은 모셔가고, 일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받아 달라’고 안달하는 모습이 마치 한 통 신화사의 ‘쇼’하는 광고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관악시단

바 람

金 源 浩

(국어교육59-63)시인

들판에 부는 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뭇가지를 스치는 한 줄기 바람이
작은 시내를 이루고 여울을 짓다가
어느 날 무서운 돌풍이 되어
집을 허물고
나무를 밀동째 뽑을 수도 있으리란 걸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내 컷전을 스치는 바람은
아름다운 노래를 읊조리고
들판의 꽃들을 흔들어 깨우고
내 마음을 연처럼 공중에 높이 날립니다
그러나
눈에서 눈으로 소곤거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들판에 부는 저 바람이
언제 매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비고 아픈 상처를 남길지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심정으로
평화로운 저녁 종소리를 싣고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특별 기고

줄곧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남북의 문제요, 민족의 문제다. 어떻게 하면 남북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꼭 같이 살아가야 하는가? 끊임 없이 되물게 되는 두 개의 물음이다.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민족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즉답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 물음은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맑은 마음으로 생각해 저마다 결론을 얻어야 할 일이다.

나의 학창시절, 그러니까 이른바 해방정국 시기의 공산당(남로당)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이른바 진보적 좌파들은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민’과 ‘계급’이 있을 뿐 민족이란 개념은 계급투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소련을 조국이라고 서슴지 않고 불렀던 이들은, 민족을 말하면 보수 반동이라고 비난했다.

在來共產黨의 당수였던 玄俊赫이 소련 군정 하의 평양에서 赤色테러의 첫 희생자가 됐다. 남쪽 공산당을 이끌고 북한으로 넘어갔던 朴憲永 등은 ‘미 제국주의의 스파이’라는 죄목 하에 차례차례로 숙청당했다. 당시 민족진영에는 세 명의 領袖

가 있었다. 李承晩, 金 九, 金奎植 - 공산당은 이들을 반동의 괴수, 불구대전의 원수라고 선전했다. 이런 사실들을 지금의 젊은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6·25를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한다.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란 뜻이다. 이 전쟁에서 같은 동포에게 먼저 방아쇠를 당긴 것은 어느



金 在 淳

(경제45-51)

샘터사 고문

본회 명예회장

편이었는가. 스탈린의 지령으로 소련을 조국으로 삼았던 金日成이 아니었던가. 같은 말을 쓴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6·25에서 체험했다.

그 후 소련에서도 70년간의 공산주의 체험이 막을 내렸고, 중국 공산당도 일찍부터 소련과는 손을 끊고 지금은 시장경제로 눈을 돌려 우리와도 자유롭게 사람과 물자를 교류하고 있다. 동서로 분단되었던 독일도 한 나라가 됐다. 하나의 민족을 둘로 나누는 것은 처음부터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20세기의 종교라고 했던 이데올로기도 서쪽 하늘로 사라졌다. 이제 우리 민

족에게 남은 과제는 남북이 화해하고 신뢰하는 일인

남북회담 有感

데, 그 첫발은 남북이 서로 왕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장은 서로 다른 체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자주 오고 가노라면 전쟁 없이 통일의 길이 절로 열리지 않을 것인가.

어려웠던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얼음 녹듯이 쉽게 풀리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大同忠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편집주간 許 璵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02)702-2233 팩스(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南仲九, 金鎮國,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實,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2008년 포켓용 DIARY·탁상용 달력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와 ‘탁상용 캘린더’를 준비했습니다.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께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8년 戊子年의 설계와 구상을 새롭게 변신한 동창회 DIARY에 기재해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친목 등산대회 5천여 동문 화합의 장으로

관악산 청결운동 · 자연보호 캠페인도...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에서 동문 가족들은 관악산을 넘어 농생대 수목원에 도착해 준비된 도시락과 태명종합식품 尹煥植(AMPFRI 4기)회장이 제공한 우동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빠른 배식과 안양시에서 설치한 자동 화장실 덕택으로 작년엔 비해 번잡함이 줄었다는 평을 받았다.

본회 許 璽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대회를 통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모교를 따뜻하게 감싸준 관악산 자락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반갑다”고 인사했다.

이어 “지난 9월 19일 서울대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한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착실하게 다져 나가고 있는 李長茂총장님과 교수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자”고 말했다.

장학발딩 건립 경과보고에서는 “목표금액의 약정이 거의 다 이뤄졌다는 것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참여한 동문이 1천5백여 명에 불과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장학발딩은 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30만 동문 전체의 것으로,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이란 캐치프레이즈로 비록 소액이라도, 많은 동문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아름다운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여러분의 열정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이번 대회를 위해 경품을 제공한 동문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협찬금을 출연해준 7백여 동문과 단과대학 및 지부동창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찬 동문 명단 4~5면 참조)

또 “최근 32년만에 하버드대 졸업장을 받은 빌게이츠는 하버드

3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은 지난 10년간 여흥을 담당했던 蔡賢九(체육교육78-82)동문의 뒤를 이어 각종 행사 및 축제 전문MC로 활동하고 있는 명석재 씨가 사회를 맡아 재치 있는 말솜씨와 진행을 선보였다.

영화관람권, 고급우산, 영양제 등의 경품이 걸린 여성 3인1조 달



林光洙회장은 “언제나 모교를 감싸준 관악산 자락에서 다시 만나 반갑다”고 말했다.

생은 특권과 기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누린 만큼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 서울대인은 장학발딩 건립 모금운동을 통해서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이 이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울대인의 기상을 채우고, 장학발딩의 명예의 전당을 채우고, 모교의 발전기금을 채우자!”고 구호를 선창했다.

행사 경과보고가 끝난 후 林光洙회장이 모교 농생대 李宇新(임학75-82 산림과학부 교수)수목원장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그동안 본회는 수목들을 잘 보존시켜 달라는 뜻으로 매년 수목원 지원금을 적립해 수목원 관리에 쓰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계속할 예정이다.

리기대회에서는 호흡이 적적 맞는 팀, 스텝이 꼬여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달리는 팀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출전해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어린이댄스에서는 수준급 실력을 선보인 여자어린이와 걸음마를 막 댄 아기의 귀여운 춤 동작이 나올 때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에는 젊은 동문들로 구성된 다양한 공연과 지난 5월 재미동창회장에 선출된 李典九(임학60-64)동문의 하모니카 연주가 가족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줬다.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1천만 원을 출연한 바 있는 李典九동문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동문을 발굴하는 것이 동창회의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정착하시는 동문들은 한 사람도 빠짐



3인1조 달리기 대회에서 여성 동문들이 발맞춰 골인 지점을 향해 뛰고 있다.



모교 댄스동아리 HIS의 비보이 공연



동문 자녀 댄스경연대회에서 어린이들이 ‘막춤’을 추고 있다.

없이 재미동창회에 등록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두 대의 하모니카로 경쾌한 쿠쿠왈츠와 한국민요를 연주했다. 李동문은 이날 경품추첨에서 타이어교환권을 받는 행운을 안기도 했다.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실용음악작곡동아리 ‘사운드림’이 ‘My way’ ‘Can’t take my eyes off you’ 등 귀에 익은 팝송을 선사했다. 이어 鄭修仁(국악98-02)·安二鎬(국악99-06)동문이 춘향가의 ‘사랑가’를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鄭修仁동문과 함께 ‘진도아리랑’을 흥겹게 따라 부르기도 했다.

또 스트리트 댄스동아리 HIS는 흥일점인 장서영(화학06입)양을 비롯한 12명의 비보이들이 무대에서 팝핀과 비보이 등 현란한 춤 솜씨를 뽐내며 젊음이 넘치는 공연을 펼쳤다.

이날 간호대·농생대·사대·생활대·수의대·의대·치대·보건대학원·행정대학원·환경대학원동창회 등에서 저마다 준비한 플래카드를 선보이며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분위기를 이끌었다.

동문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던 경품추첨에서 본회 林光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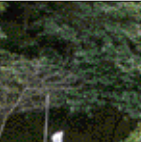
장이 협찬한 소형 승용차는 申定均(농경제54-58)동문, 대림산업 李煥鎬회장이 협찬한 스쿠터는 魏奉澤(무역62-69)동문이 차지했다. 또 SBS 尹世榮회장이 협찬한 42인치 PDP TV는 閔範植(농경제48-53)동문, 롯데관광 金基炳회장이 협찬한 동남아 여행권은 金鍾元(영어교육61-66)동문에게 돌아갔다.

이른 오후인 3시경 행사를 마친 동문 가족들은 신속히 주변정리를 하고, 출발지인 모교에서 나눠준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여 지정된 장소에 버린 뒤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 각 가정으로 돌아갔다.

이번 등산대회에서 안양환경운동연합이 수목원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행사 개최 재고를 요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 취재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9년간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온 등산대회는 모교 발전과 동문들의 단합을 독려하는 동시에 수목원 보호와 청결한 관악산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병행하며,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차량통제를 실시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表)

등산대회 협찬 감사합니다

친목 등산대회에 협찬금·품을 출연해 주신 동문을 소개합니다.

- 지면 관계로 동창회 임원 분들만 사진 게재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신대,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특별과정 기수 표시)하
영
기문리44·본회 고문
전 한국은행 총재
일금 30만원백
낙
환의대44·본회 고문
인제학원 이사장
일금 30만원김
상
하문리45·본회 고문
삼양사 회장
일금 30만원강
신
호의대46·본회 고문
동아제약 회장
음료수·소이조이 각 3천개백
문
기미대46·본회 고문
예술원 회원
일금 30만원구
평
희문리47·본회 고문
E1 명예회장
일금 30만원김
재
순상대45·본회 명예회장
샘터사 고문
식기세척기 1대이
장
무공대63·본회 명예회장
모교 총장
고급우산 3백개임
광
수공대48·본회 회장
임광토건 회장
승용차 1대손
일
근법대51·본회 상임부회장
한국일보 상임고문
디지털 카메라 1대명
태
현공대46·관악회 이사
전 송원기업 대표
일금 30만원박
영
자사대46
시인
남성용 화장품 1SET정
석
규공대48·관악회 이사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일금 30만원유
중
해법대50·본회 부회장
연세대 명예교수
일금 20만원이
길
여의대51·본회 부회장
경원대 총장
와인냉장고 1대박
희
백의대51·본회 부회장
박희백정형외과의원장
진공청소기 2대하
두
봉문리52·대학원동창회장
모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일금 30만원김
중
일법대52·김포지부동창회장
북한연구소 이사장
일금 10만원배
명
인법대52·본회 부회장
(법) 태평양 명예 대표변호사
일금 50만원이
상
혁법대54·본회 부회장
고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일금 50만원이
금
기약대55·본회 부회장
일동제약 회장
아로나민골드 10통윤
세
영법대56·본회 부회장
SBS 회장
42인치 PDP TV 1대정
해
창법대56·본회 부회장
좋은합동법률 대표변호사
일금 10만원이
준
용상대56·본회 부회장
대림산업 회장
스쿠터 1대김
찬
숙치대56·본회 부회장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일금 50만원정
영
채수의56·수의대동창회장
대한수의사회 회장
일금 30만원공
대
식공대56·본회 부회장
대영테크시스템 사장
일금 50만원이
재
후법대58·법대동창회장
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일금 30만원조
병
우공대59·본회 부회장
유풍실업 회장
일금 50만원강
인
구수의대59·보대원동창회장
대영EEC 회장
일금 30만원홍
성
대문리57·본회 부회장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DVD 콤보 2대남
정
현공대57·본회 부회장
대우엔지니어링 회장
일금 50만원남
중
구문리58·관악연인회회장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일금 30만원이
재
후법대58·법대동창회장
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일금 30만원손
길
승상대59·본회 부회장
전 SK 회장
워커힐 외식상품권 2인 5매조
병
우공대59·본회 부회장
유풍실업 회장
일금 50만원강
인
구수의대59·보대원동창회장
대영EEC 회장
일금 30만원안
성
철법대58·관악회 이사
유니온테크 회장
일금 10만원김
봉
구미대58·미대동창회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일금 30만원우
인
성공대58·본회 부회장
인터비즈니스 회장
일금 50만원허
진
규공대59·본회 부회장
일진그룹 회장
일금 50만원손
길
승상대59·본회 부회장
전 SK 회장
워커힐 외식상품권 2인 5매조
병
우공대59·본회 부회장
유풍실업 회장
일금 50만원강
인
구수의대59·보대원동창회장
대영EEC 회장
일금 30만원허
영
섭공대60
독실자 회장
영양제 30통강
광
언공대60
롯데물산 사장
롯데시네마영화관람권 1백매박
영
준상대60·본회 감사
에일컨설팅그룹 회장
일금 30만원조
정
남공대61
SK텔레콤 부회장
휴대폰 3대이
철
우농대61
롯데쇼핑 사장
롯데백화점상품권 3매오
명공대64·본회 부회장
건국대 총장
일금 50만원김
일
섭상대64·관악회 감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일금 10만원김
휘
중공대64
한국타이어 사장
한국타이어 상품권 3매허
선문리64
본회 사무총장
외장형 HDD 4대홍
예
표치대65·치대동창회장
홍예표치과의원장
일금 30만원김
기
병行大院67졸·행대원동창회장
롯데관광 회장
동남아 2인 여행권 1매김
중
섭문리66·본회 부회장
삼익악기 회장
전자피아노 1대성
기
학상대66
영원무역 회장
등산화 10켤레이
영
일공대66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사장
파라다이스호텔숙박권 3매현
재
현법대67·본회 부회장
동양그룹 회장
동양전자 상품권 1매최
병
선공대67·환대원동창회장
국토연구원 원장
일금 30만원김
홍
식經大院71졸
금복주 회장
소주 2천팩김
경
희상대70
서울랜드 사장
서울랜드 빅5이용권 30매최
병
민문리71
대한필프 회장
깨끗한나라 물티슈 4천개신
현
택사대71
예술의 전당 사장
공연 티켓 6매신
창
재의대72·본회 부회장
교보생명보험 회장
일금 30만원정
충
시공대72·본회 부회장
오미아코리아 회장
일금 50만원김
이
환新大院72·연대원동창회장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일금 30만원

김하준  사대73 해외개발 사장 비타민 영양제 1백통	박명윤  保大院74·관악회 이사 한국 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일금 10만원	남중수  경영75 KT 사장 휴대폰 3대	오병권  공대77 태창 사장 금강산샘물 4천병	류진  인문78·본회 부회장 풍산 회장 일금 50만원	윤재승  법대81 대웅제약 부회장 영양제 30통	정팔도  AIP1·본회 부회장 코리아랜드컴파니 회장 일금 50만원
김병순  AMP4·관악회 이사 한국구아노 이사 일금 30만원	장경작  AMP33·관악회 이사 롯데호텔 사장 롯데호텔식사원 2인 3매	전홍규  SGS3·SGS동창회장 진흥기업 대표 일금 30만원	강보영  HPM1·HPM동창회장 안동병원 이사장 일금 30만원	김명도  iIP3·iIP동창회장 영진로지스틱스 회장 일금 30만원	강성모  AMP17 린나이코리아 회장 선풍기 20개	김두환  AMP17 한국화장품 사장 화장품 SET 10개

(일금 20만원)

◆법대 △정정길61
◆의대 △박양실54
◆치대 △임우하58

(일금 10만원)

◆인문대 △김병철76 △변원일67
△오세중79 △이재용87 △최태영76
◆사회대 △김원진72 △김태식78
△박종국73 △신철식73 △신희창69
△안상환77 △이철69 △이승무72
△이희재69 △정기봉75 △조학수69
◆자연대 △김윤68 △이선영05
◆간호대 △윤소녕69
◆경영대 △권영수75 △양정모72
△유태우79

◆공대 △강민70 △강구선63
△강의철73 △강학순64 △강행언61
△고재홍75 △곽승59 △곽상영51
△구자영54 △김국호65 △김근배64
△김기순76 △김덕수51 △김병주59
△김석주48 △김성중59 △김영대61
△김영운62 △김용원70 △김우성06
△김원배55 △김윤규62 △김재동70
△김종욱61 △김준언71 △김진근71
△김진원68 △김형진51 △문규철69
△문정규52 △문희성57 △민계식61
△박기찬64 △박성훈58 △박신규64
△박용운59 △박종택48 △박철완76
△배기은57 △서우원61 △서진근53
△선석문68 △선우정호61 △설영화65
△송명호59 △송지오66 △송진해63
△송진환45 △송흥빈58 △송효상71
△신국범50 △신동수52 △신동식72
△신양호71 △심형운52 △안건혁67
△안철호48 △양흥준65 △여운관53
△염사연64 △오동희78 △오병욱57
△오성환59 △오원석71 △원정수53
△원준영77 △육종철50 △윤문61
△윤필문57 △이계수63 △이남순72
△이동환66 △이상호66 △이석준83
△이성원58 △이세혁66 △이승준56
△이영섭59 △이영재69 △이영필66
△이영희57 △이용우64 △이원도59
△이정규61 △이종대57 △이종호59
△이중성61 △이창갑46 △이한정81
△이현주66 △임병주52 △장원갑63
△장학순46 △장현갑69 △전윤식71
△정상근48 △정연세53 △정용권58
△정인조71 △정주열73 △정현일60
△조병철59 △조창걸59 △조창희59
△조중휘63 △조필제46 △주영재72
△지순54 △진대제70 △채방은65
△최갑석51 △최강등65 △최광열63
△최인재53 △최정길52 △최종명56
△추지석59 △추현출55 △홍선표53
△홍영희54 △황선욱55 △황인섭73

△황해근54

◆농생대 △곽영철59 △권명규68
△권오준65 △김근영65 △김남용53
△김상무54 △김성훈58 △김영섭65
△김영진53 △김형영74 △문현팔64
△박수복56 △설동섭53 △성배영62
△손두식57 △신광식56 △심재덕57
△심재익56 △양상홍62 △우성봉79
△유강근72 △유관희63 △윤대섭49
△윤익석53 △윤희진63 △이기영66
△이덕록72 △이도경56 △이돈구65
△이무근60 △이병영76 △이부경50
△이재창57 △이정호71 △이혜근67
△장영주85 △조용섭54 △조진환50
△천기만70 △한정길63 △한태우46
△홍성구65 △황경구56

◆문리대 △강신항49 △고건56
△권기욱60 △김구58 △김광식59
△김기주54 △김상호58 △김선일61
△김성기60 △김승국56 △김완규48
△김원주66 △김용성62 △김재실63
△김진동58 △김춘석69 △박근우61
△박맹호52 △박영원74 △박용욱55
△박종오55 △배기성68 △백낙운56
△서범주59 △서옥식69 △서재만59
△송규정63 △신영철57 △양규모61
△어한수55 △엄병윤60 △엄영섭66
△오완영59 △오인섭60 △유종상66
△윤옥영58 △이경재59 △이경형66
△이광희59 △이상현64 △이성해61
△이수홍49 △이용태63 △이원홍52
△이정수59 △이종대69 △임현진67
△임형두57 △장성주63 △장순근65
△장정환56 △정병순58 △조기웅66
△조완규48 △최영희61 △최정도62
△한광욱60 △허경연55 △허종택63
△홍종웅65 △황보순57

◆미대 △김종학56 △박항률70
△이강소61 △이병석58 △이종철59
△이주숙70 △전영철53

◆법대 △강성명86 △강성목52
△강호성83 △고광석63 △곽노준74
△곽동현61 △구자준54 △권영세77
△권오윤56 △금진호50 △김갑현50
△김경환62 △김능환71 △김대환61
△김민복66 △김선환66 △김성길60
△김영갑74 △김영무60 △김용환79
△김재율39 △김종건61 △김진익55
△김창국58 △김하남49 △김효룡48
△김환구74 △김환수52 △김희근73
△나대진67 △노경래61 △명호근61
△목요상55 △문성우75 △민병국57
△민수명60 △박성철75 △박용도57
△박원표70 △박유광60 △박재경57
△박준서58 △박철근55 △변준근56
△서정신58 △서창균58 △서창훈81

△성시웅77 △송언종56 △신명균62
△심재갑52 △심태식47 △안동일59
△안승국76 △양동관67 △양희영52
△여동영60 △오복동57 △오세희58
△우광택77 △우창복70 △유기홍58
△유해덕53 △윤동운57 △윤일영52
△유재열50 △이대순53 △이보현58
△이삼섭68 △이상완64 △이상환78
△이여성73 △이인표54 △이재원76
△이재전52 △이창원55 △이천수61
△이태운68 △이해규60 △이현범72
△임규운57 △임태우59 △임휘운62
△장태규76 △정구영57 △정문화59
△정장현59 △정지형58 △정진규65
△정해주63 △정휘우62 △조가윤60
△조대연69 △조동원54 △주찬화69
△최낙현54 △최상엽61 △최상욱79
△최연희64 △최종고66 △최종건62
△하일부57 △한광세60 △한일성66
△홍성조71 △홍세렬80 △황영규75
△황영하58 △황이연55

◆사대 △김동길57 △김수관70
△김신복64 △김영수87 △김우탁57
△김준문48 △김충언58 △김혜경70
△김회영57 △박명학61 △박석관71
△박종달49 △송대량60 △안상수71
△윤용혁60 △이종55 △이경복69
△이동호59 △이병호70 △이석주60
△이영수61 △이원희71 △이익환64
△이인규59 △이주환53 △이환희54
△이희용60 △정광현71 △조은분42
△조진현57 △지대성75 △최병주56
△최충남62 △함오연67 △황선용57

◆상대 △강수현58 △고광직51
△고병우52 △권오근49 △권이성52
△김남현53 △김승환67 △김영규55
△김의식46 △김정훈46 △김창수66
△김태두50 △김홍국59 △나공목56
△류종목59 △문대원71 △문운용60
△박철64 △박건호59 △박길상68
△박성석61 △박영주59 △박영호67
△박정열60 △박현두58 △배영환49
△배종렬61 △변창기54 △석학진58
△선종승71 △성하현59 △손희근46
△송기태52 △송인상55 △안재동60
△안재천56 △안태호45 △엄일영53
△원우식52 △유석기57 △유영일53
△유영석58 △이계안71 △이규성58
△이기용61 △이민수57 △이봉서55
△이석재64 △이수빈57 △이수익61
△이용우61 △이종현59 △이환희54
△이형직67 △이희순55 △임채주55
△장시원70 △정상근68 △재경용65
△조대연45 △조문규57 △주일50
△지창수55 △진영수63 △최광현62
△최남해52 △최명재48 △최선욱71

△홍면후46 △홍성주58 △홍영기57
◆생활대 △손경희66 △이의숙56
◆수리대 △김건호70 △박종명61
△신현일57 △임봉택55
◆악대 △공영석57 △권박61
△김금림62 △김선중61 △김진우54
△김진희55 △남기동64 △박준영60
△박창서67 △신정균55 △유도봉66
△이경수66 △이계관70 △차기현59
△최유환56 △최진관77 △홍기정60
△홍순언60

◆음대 △강신자56 △공병우93
△김강61 △손국익64 △윤병택58
△정태봉72

◆의대 △김규한76 △김근우61
△김병찬53 △김영덕64 △김정순60
△김민석91 △김종구77 △김지현89
△김형주55 △남상륜72 △문성무60
△박영하46 △박용현62 △박이철43
△박인원76 △박인철66 △박재갑67
△박조열52 △박찬웅54 △박효일58
△방성호66 △백대진74 △변상현51
△서병태54 △선우대환71 △신면우48
△신현철46 △여봉구77 △유형대54
△윤광선68 △은희철68 △이갑노65
△이관희75 △이대규53 △이상용64
△이순형56 △임재준50 △임진호73
△장돈식56 △정규병65 △정문성78
△정진택46 △조강희59 △조경환52
△최규완55 △최우철84

◆치대 △강구한59 △강성현69
△강효식57 △김세진67 △김영근80
△김영일79 △김우철69 △김운영58
△김정수54 △김종두55 △김창원68
△김홍석57 △류재훈62 △민병덕64
△박금태58 △박상균66 △박옥련53
△박준영60 △방달호58 △백성기71
△양문섭78 △양유식70 △유재석70
△유태영63 △이봉재56 △이상철57
△이상필70 △이유현90 △이윤상59
△이윤희87 △이정호60 △이진근63
△이희주67 △임순모70 △장병천70
△장영일64 △정건용52 △정소영52
△정재영70 △조성복55 △조유동55
△최성근65 △최영희58 △한성훈60
△한철희64 △허택71 △허노정67
△허준구66 △홍성팔82

◆대학원 △손정환83 △안무혁62
△윤옥경75 △문형근79 △변정환81
◆경대원 △김운택68 △이병재69
△장몽인66 △조현국73

◆보대원 △민정기81 △이규한63
◆사대원 △김적승69 △김창식67
◆연대원 △강대근76 △곽찬호69
◆환대원 △민봉기77 △이평재73
◆행대원 △고충삼63 △노일숙79

△연기호67 △윤오수95 △윤일균69
△이두현74 △이체호68 △정경모65
△조성근61 △최계순65

◆AMP △곽언구34 △곽중익47
△김상봉46 △김재욱11 △김종엽28
△김준언34 △김철한3 △김태진48
△김현수45 △김혜삼51 △박상규31
△박인상28 △성승모1 △신성우32
△신정택48 △심상조55 △안병근50
△오병제21 △오세철58 △오순택30
△유병진49 △이근호52 △이세락45
△이수호55 △이원구48 △이정상49
△이정식13 △이종철56 △전용배57
△정연근58 △최강호60 △최수부15
△최영주37 △하재준11 △한규범42
△홍기표55 △황경모11

◆AIP △강명영20 △고상언11
△권오석3 △금병찬32 △김동하29
△김성길7 △김승호34 △김재기16
△박영식28 △양명9 △우영식28
△이대만24 △정운계31 △정희용27
△최정호21 △현정원19

◆ACAD △권정신2 △김성은30
△김유복4 △김천희1 △김충한18
△노희찬33 △박신언16 △박대동6
△오성근18 △이덕수44 △이상영40
△이왕열33 △정이조48 △정진호46
△조보현55 △조주태14 △진강현20

◆ABP △이관철3

◆SGS △김승규7 △김영근6
△김영대12 △김종호4 △박만길3
△윤준선4 △이기채3 △이종춘5
△이창섭7 △임경보11 △장낙순10
△정종현13 △한영애2

◆APC △김두환5 △이원하9
△장신현3 △함춘조2

◆HPM △권기진8 △김동오18
△박만식5 △백준식17 △서관석2
△유문경12 △윤종필6 △이용팔13
△이형근17 △임성수14 △장찬기8
△조길웅14

◆AMPP △신희백5 △이귀복5
△조원환6 △한창범5

◆AIC △김동구13 △이경의5
△이도형22 △홍윤기1

◆AFB △김영철1 △이동락1

◆AMPFRI △김경호15 △김종관11
△남기원17 △문운봉15 △서봉석1
△양준호14 △최삼현2

◆ACPMP △김순갑2 △김정식3
△최원태2

◆iIP △황귀봉1

◆GLP △강덕수8 △남재술9
△박종태6 △양재길5 △이원욱11

◆ALP △박창규2 △오도영1
(10월 31일까지 보내주신 분)

장학빌딩 기금 열기 끝없이

李亨道동문 5천만원 출연



지난 10월 23일 삼성전기 李亨道(화학공학61-67) 고문(사진 左)이 부인 朴孝順(영어교육66-70)동문과 공동명의로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KIST 연구원을 거쳐 73년부터 삼성그룹에서 근무해온 李동문은 삼성전자 연구소장, 삼성전기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6년 전 모교

洪禮杓동문 5천만원 쾌척



周(의학90-96)동문과 큰사위 具亨鎭(의학87-93)동문, 장남 李宗燦(공업화학91-95)동문, 차녀 李炫周(의학93-99)동문이 모교 출신이다.

또 지난 10월 16일 洪禮杓(치의학65-71)치과의원장(사진 右)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1천만원을 보내왔다. 앞으로 ‘洪禮杓특기장학회’ 명의로 모교 치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치과대학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洪동문은 “전임 회장 등 여러 임원들께서도 기금을 내주셨으니 회장으로서 재학생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렇게 한 명, 두 명 출연하다 보면 동문들의 참여도 늘어나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해온 洪동문은 모교 발전위원회 집행위원, 스마일재단 이사 등을 겸하고 있으며 2년 전부터 남북치의학교류협회 공동대표로 매월 두 차례 북한 온정인민병원에서 무료 치과진료를 하고 있다.

1천만원 출연도 봇물

지난 10월 한 달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柳泰煥(상학48-54)前쌍용화재 대표, 모교 徐桂淑(기약56-60 음악대학동창회장)명예교수, 상지상사 表相基(원자력공학61-65)회장이 각각 1천만원을 출연했다.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가 설립된다.

관악회 張慶作이사 선임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10월 22일 신임 이사에 롯데호텔 張慶作(AMP 33기) 사장(사진 左)을 선임했다.



신임 張이사는 신세계백화점 부사장, 서울웨스턴조선호텔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AMP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表)

제주지부동창회

신임 회장에 金富燦동문



제주지부동창회(회장 金恒元)는 지난 10월 19일 제주시내 아람가든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金富燦(법학74-78 제주대 교수)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에 梁永洙(영어영문65-72 제주대 교수)·林允圭(수의학75-82 제주대 교수)동문을 재선임했다.

부산지부동창회

영산대서 운동회로 단합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河基成)는 지난 10월 21일 경남 양산시 영산대학교에서 동문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축하공연으로 인간문화재인 이화풍류원 박지영 원장이 동래야류 탈춤과 풍물한마당을 선보였다.

2부 운동대회에서는 부부가 함께 추는 ‘차차차’ 댄스, 운동화 멀리던지기, 풍선 떨어뜨리기 게임 등을 즐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동문 자녀를 위한 다트게임, 사생대회도 좋은 호응을 얻었다.

동창회는 오는 12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0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08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7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8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세계 무대 ‘대한민국 문화 전도사’로 활약

동문을 찾아서

李美敬 CJ엔터테인먼트&미디어총괄 부회장

“우리의 영화와 음악 그리고 우리가 만든 스토리를 보기 위해 뉴욕에서, 런던에서, 홍콩에서 각기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늘 상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세계여성상(경영부문)을 수상한 李美敬(가정관리77-81)CJ엔터테인먼트&미디어총괄 부회장. 현재 李동문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산업을 이끌면서 1년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우리 문화와 콘텐츠를 알리는데 헌신하는 ‘대한민국 문화 전도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어떤 모임에도 편안하게 받쳐 입을 수 있는 검정색 옷을 즐겨 입는 李동문은 “배우는 것이 만병통치약”이고 “문화 콘텐츠력이 국력”이라며 “대중문화 코드에



대답 : 본보 朴聖姬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항상 신곡에 도전한다”고 말한다. 이에 李동문으로부터 그

동안의 성과와 CEO로서의 포부, 영화에 대한 꿈 등을 들어보았다.

— 10월초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신 것으로 압니다. 오랜만에 대중적 행사에 참가하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국내의 주요 영화관계자를 만나 국제시장에서의 부산영화제와 한국영화의 처한 현실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영화감독과 작가들을 만나고 그들이 제작한 인디영화들을 직접 관람하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하고 활성화만이 한국영화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 ‘화려한 휴가’ 등 하반기 개봉영화도 팬층은 성적을 거뒀고, 최근 개국 1주년을 맞이한 케이블TV채널도 좋은 반응을 얻었죠. 반면에 극장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듯합니다. 올 한 해를 평가하신다면, 내년 계획과 장기 플랜도 좀 알려주시죠.

“올 한 해 동안 내부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영화와 방송사업에서 자체적인 제작 역량 및 운영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실적 자체에 —喜—悲하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제작·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의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극장사업은 국내 영화시장 자체가 성장 정체에 직면하면서 수요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공되는 콘텐츠의 한계와 사이트(상영관) 개발의 포화가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 수요층(가족시장 및 중·장년층 고객 등)의 발굴과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콘텐츠사업 측면에서는 국내 대중문화 시장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 다양성 확보와 지속

적인 ‘한류’ 경쟁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원천 경쟁력이 될 창의적인 인적 자원의 육성과 개발에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재 저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인 ‘인디 독립영화 산업 발전’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극장 등 플랫폼사업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인디영화산업 육성과 양질의 콘텐츠 제공 목표

‘문화 쏠림현상’ 없애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 필요

같이 차별화된 마케팅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규 문화 수요층을 확대,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 1년 중 반 이상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데, 주요 활동무대는 어디인지요. 아시아 필름마켓, 중국과의 영화합작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극장사업도 계획하신다면 얘기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일일이 열거해 설명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미국 LA에 내년 하반기 멀티플렉스 개장을 앞두고 있고, 작년부터 한국영화의 극장, 홈비디오 및 TV배급 등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현지 사업파트너들과 함께 영화 공동제작, 배급 및 극장 개발(상해 및 북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CJ Media Japan을 설립해 방송채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 태국 등에서 방송 및 영화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에

서 한류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계 차세대 리더’ ‘한국 미디어산업의 우먼파워’ ‘한국 영화계를 이끄는 여성 CEO’ 등 수식어가 화려한데요. 어떤 기업가 또는 인물로 불리기를 바라시는지요. 또 임직원의 인사관리에서 중점을 두는 부문은 어떤 것인지요.

“저는 우리의 영화와 음악 그리고 우리가 만든 스토리를 보기 위해 뉴욕에서, 런던에서, 홍콩에서 각기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늘 상상합니다. 정말 멋진 우리 콘텐츠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1년의 절반 이

상을 해외에서 외국 영화감독과 프로듀서 그리고 아티스트들을 만나 협상하고 설득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겐 ‘우먼파워’라기보다 ‘대한민국 문화 전도사’라는 게 더 맞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박찬욱 감독이나 장동건 씨 같은 화려한 주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도록 돕고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임직원들의 인사관리에서 중점을 두는 부문은 기본자질, 열정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정적인 태도를 가장 중요시하는데, 이는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 시켜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창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한국 영화계가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많다고 봅니다. 영화의 경우 지금까지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구성없이 비슷비슷한 영화가 양산되면

더 이상의 한류붐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계 활성화에 기여한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분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든다면.

“지난 10여 년간 한국영화 시장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연 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외형적으로 세계 5위권에 육박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성장 외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또한 우리나라입니다. 기술개발력만 빠른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디지털 문화에 대한 수용성(UCC, PCC 등)도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내 소비자들의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불법사용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를 강화하고 일본시장의 소비관행을 참고로 해 일반 소비자들의 콘텐츠 유료사용에 대한 생활화·습관화가 정착된다면 디지털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을 촘촘히 관통하는 브로드 밴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PC, TV, Wireless 등의 보급률과 빠르게 도입될 디지털 극장 시스템 등도 궁극적으로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리를 좁혀 줄 것입니다.

극장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Value를 나름대로 개발하고 진화시켜나가는 데 타 원도우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분명히 유지시켜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3D, 4D, IMAX 및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극장 서비스 개발에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 여성 CEO로서 문화사업을 활발히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듯합니다. 작년 10월 뉴욕 맨해튼센터에서 세계여성상(경영부문)을 수상한 뒤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요.

“국내의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웃음). 세계 여성상 수상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지만, 한국영화의 위상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새삼 보람을 느낀 계기였습니다. 또한 CJ엔터테인먼트가 남몰래 해온 일이 평가받은 점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CJ엔터테인먼트가 해외에서 뭘 하는 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CJ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일종의 국제적 문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좋은 한국영화, 좋은 감독과 배우를 만나면 그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매끈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남모르게 애써왔는데, 그런 노력이 일정 부분 인정받은 것 같아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영화, 드라마, 음악 등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좋은 영화와 감독과 배우 그리고 스토리를 발굴해야 진정한 세계 속의 한국문화를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 소수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하겠다”



– 당시 한국영화계 발전은 물론 여러 자선단체에 공헌한 것이 수상자 선정 이유였는데요. 엔터테인먼트 분야 외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다양성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빠른 시간 내에 큰 발전을 이룬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정서와 획일적인 교육 등으로 ‘문화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나라 보다 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획일주의, 쏠림 현상이 자칫 문화적 폐쇄성으로 비치며 세계 시장에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역동성을 가진 민족이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만 갖추게 된다면,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문화상품에 있어 핵심기술은 힘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 다양성 교육을 위해선 ‘창의적 소수’(creative minority)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CJ엔터테인먼트에서는 과거 운영해오던 ‘CJ 아시아 인디 영화제’를 현재 ‘CJ 중국영화제’나 ‘디지털영화제’(CINDI) 등으로 확대 지원 중이며, CGV에서도 인디영화 전문 상영관인 무비플러스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런 ‘창의적 소수’들의 문화적·영화적 실험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많은 여성들에게 역할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부담도 되고 책임감도 크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처럼 사시 패스하는 여성 비율이 높고, 의대에 진학하는 여학생 비중도 높고, 모든 시험에서 여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여성 세대에게 길을 터주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핸디캡이 있습니다. 남성 간부직원들은 옛날부터 어디를 가든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오면 과장이 있고 내가 조수면 사수가 있고, 과장이 되면 부장이 있고, ‘나 저렇게 되면 돼’ ‘난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면 돼’가 보였죠.

하지만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결혼해서 애도 낳고 부지런히 일해 임원이 돼 있어’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스스로 롤모델의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1세대로서 받아들여야 할 숙명입니다. 대신 지금의 여성 리더들은 남성들처럼 선배의 구태를 시행착오로 답습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사·석사·박사 전공과목이 서로 다른 데다 현재 일하는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유가 있는지. 장점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소위 통섭의 시대입니다. 한 가지 전공에 대해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전공을 망라하며 다양한 틀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대중문화 코드에 맞춰 항상 신곡 즐겨 불러

“대한민국 1등 아닌 글로벌 챌린저 되자”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라는 화두로 비즈니스를 하자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중국에서, 대만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경영학이 아닌 그 나라의 언어와 지역학을 배운 것도 이같은 문화 비즈니스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언어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일 뿐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적 정서부터 문화적 현상까지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훌륭한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 친화력이 좋고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압니다. 술이나 골프를 하지 않는다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남들이 다 하는 운동이나 비타민 등에 대한 얘기 말고, 저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배움(learning)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은 비타민과 같습니다. 꿈이 있고, 건강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농담 같지만,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친구에게서 제가 잊었던 꿈을 다시 찾고, 에너지가 넘치는 지인들로부터 제 삶의 나태함을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분들로부터 혁신적이고 발상 전환적인 노력을 배우다 보면, 수많은 사람

을 만나도 지치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얻고 더 열정적으로 삶을 운영하게 되는 치유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배우는 것이 만병통치약’입니다.”

– 노래실력이 수준급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를 닮으셨는지요, 애창곡을 소개해주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래 부르는 실력보다 노래 듣는 실력이 수준급이라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 끝내고 노래 부를 기회를 갖게 돼도,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니까 명가수라기보다는 명심사위원이라고 해야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셔서 여러 가지 레코드를 구해 주시면서 좋은 음악, 새로운 음악을 자연스레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어요. 돌아켜 보면, 부모님의 그 작은 배려가 제가 지금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된 듯해 늘 감사드립니다.

덧붙이자면 남들처럼 18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갖는 일종의 직업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새로운 음악, 접해보지 못했던 감성에 스스로를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 한 달 전 유행했던 노래도 ‘옛 노래’라 생각하고 신곡에 도전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 대중문화 코드에 뒤처지기 십상이니까요.”

– 늘 많은 사람을 대면하고 비즈니스를 하다보니 패션감각도 뛰어나야 할 텐데, 좋아하는 브랜드나 디자이너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십니까.

“언젠가 뉴욕커들의 특징을 서술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커들이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크락슨이다. 뉴욕커들은 옆집 주인 이름은 몰라도 옆집 강아지 이름은 안다. 뉴욕커들의 옷장에 제일 많은 옷은 검정색 옷이다..”

그중 세 번째는 저와 유사합니다. 저도 검정 옷을 즐겨 입습니다.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 패션에 관심 쏟을 여유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멋있어 보이는 옷보다 활동하기 편한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기 좋은 옷을 입고서는 조찬 모임부터 저녁 약속까지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는데 불편하거든요.”

– 영화, 특히 한국영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미국 유학시절 작은 나라 출신으로 겪어야 했던 서러움이 문화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내 한국인의 위상은 정말 보잘 것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미지는 그저 가난한 나라, 한국전쟁에 미국이 시해를 베푼 나라 정도였습니다. 일본인은 물론 중국인들 역시 돈을 많이 번 화교들이 대학에 기부를 많이 해 대접이 남달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해도 많았고 한국역사에 대한 강의 역시 일본인의 시각에서 진행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과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구요. 이런 경험 탓에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늘 새겨두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15~20년 전만 해도 팝송이 한국 음악시장의 70~80%를 점유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를 우리 가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들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흐뭇한 일입니다. 또 미국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동남아 여성들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류 스타들을 거론하면서 더욱 반갑게 대해 줍니다. 모두 우리 문화 콘텐츠의 힘 덕분입니다. 자라면서 들었던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은 이제 ‘문화 콘텐츠력이 국력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영화의 핵심은 결국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인데, 격동의 근·현대사를 겪은 한국만큼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나라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에 짜임새 있는 연출력만 있다면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면 근본에 충실한 스토리, 비록 허구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리얼리티와 진정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여러 외국어를 완벽히 구사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남다른 공부방법이 있으신지요.

“자랑 같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외국어는 무조건 외우는 것입니다. 대답이 조금 싱거운가요? 다른 분들은 특별한 비법으로 정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실하게 외우는 것 말고 특별한 왕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다른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교 시절 코리아헤럴드 주최 영어웅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경험이 외국어와 ‘즐거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자극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동창회보를 통해 동문이나 재학생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Local Champion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Global Challenger로서 도전하며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 넘버원이라는 말보다는 세계 몇 위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무대의 크기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베스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과 대한민국 1등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는 길과 사는 방식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창의적 소수’ 역할을 맡은 서울대인만큼 로컬 1등에 안주하는 방식이 아닌 글로벌 챌린저가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 테니까요.” (정리= 表智媛기자)

의과대학동창회

미술전·도서기증·골프대회 펼쳐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함춘미술전, 흙커밍데이, 도서기증식, 골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동문간 친목과 모교 발전을 도모했다.

지난 10월 2일 졸업 40주년을 맞아 21회 동기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모교를 방문했다. 동창회는 기

념식에서 성균관대 徐正燾(61-67) 총장과 故 金正根(61-67)동문에 게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상을 수여했으며, 21회 동기회는 대학발전기금과 동창회기금으로 각각 2천5백만원, 1천만원을 전달했다.

16~24일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가전홀에서 회관 건립 5주년을 맞이해 열린 함춘미술전에는 咸台永



(44-50)·趙昌源(46-50)·全濤根(46-53)동문 등 20명의 회원이 서예, 서양화, 사진작품 총 35점을 출품해 동문간 문화교류의 장

을 펼쳤다.

16일 미술전 기념식에 이어 동창회 학술연구재단(이사장 河權益)은 도서기증식을 갖고 1천5백

만원 상당의 도서를 모교 의대 도서관(관장 徐廷旭)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28일 인천그랜드CC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해 72명의 동문들이 즐거운 라운딩을 가졌다. 이날 경기결과 金鎮永(50-56)·朴善玉(80졸)·曹盛旭(80-86)동문이 각각 시니어부, 여성부,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에는 朴聖泰(58-64)·李吉女(51-57)·鄭重熙(78-84)동문이 올랐다. 준우승은 池三峰(55-61)·朴孃實(54-60)·鄭承容(83-89)동문이 차지했다.



耳順테니스회

趙勝鉉·金明煥 동문 우승

60세 이상 테니스 동호인으로 구성된 耳順테니스회(회장 姜信玉)는 지난 10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 코트에서 제53회 정기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姜信玉회장을 비롯해 金學主(중문52-56)·鄭智榮(불문 56-61)·李在昊(영문 55-60)신입회원 등 20여 명이 참가해 체력을 단련했다.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팔순조 : 우승 趙勝鉉(의학45

-49)·金明煥(의학46-51)동문, 2위 金有吉(경제44-50)·馬景錫(화학공학45-48)동문, 3위 全毓烈(토목공학45-48)·李文炯(약학47-50)동문 ▲이순A조 : 姜信玉(법학56-61)·李慶佑(체육교육61-65)동문, 2위 李昌健(전기공학49-54)·申京鐵(행정64졸)동문, 3위 金學主(중문52-56)·鄭智榮(불문56-61)동문 ▲이순B조 : 우승 金燦祚(농화학49-54)·曹圭勇(경제53-57)동문, 2위 洪明熹(법학55-59)·韓榮成(전문기상59-63)동문, 3위 朴商浩(건축52-56)·朴仁鎬(체육교육53-57)동문.



단체전 우승한 12회 동기회와 洪龍濤회장(중앙)

상과대학동창회

바둑대회 1백여 명 참석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濤)는 지난 10월 6일 서울 서초동 금연기원에서 제6회 동문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1백여 동문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은 12회 동기회가 차지했으며, 개인전 甲조 1위에 吳江默(경제85-89)동문, 乙조 1위에 文彥錫(상학54-58)동문이 각각 올랐다.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 우승 12회 동기회(李祥雨·趙鈺來·洪光錫동문), 2위 24회 동기회(金相男·延健昊·張仁相동문), 3위 17회 동기회(李武彥·柳烈·崔圭成동문)

▲개인전 甲조 : 우승 吳江默동문, 2위 金英埴(경영66-70)동문, 3위 白鍾敏(상학66-70)동문

▲개인전 乙조 : 우승 文彥錫동문, 2위 金興萬(무역66-70)동문, 3위 徐用錫(상학66-73)동문.

한편 이날 기우회 차기회장으로 코오롱그룹 羅公默(상학56-61)고문을 선임했다.

문리대 64학번 동기회

文明淑동문 축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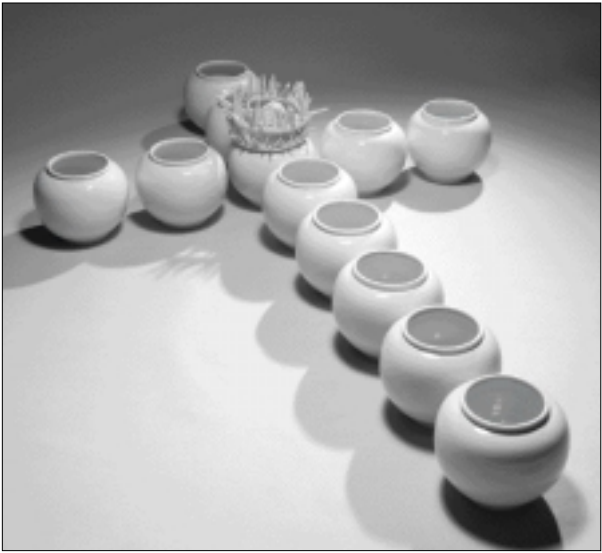
문리대 64학번 동기회인 마로니예회(회장 鄭昭盛)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서초동 기와집 순두부에서 가톨릭대 교학부총장으로 취임한 文明淑(중문64-68)동문 축하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을 위해 제주도에서 올

라온 權武一(철학64-68)동문을 비롯해 金宣利(사학64-68)·金洪潤(중문64-68)·盧永仁(미학64-68)·朴信雄(독문64-68)·卞相根(정치64-68)·辛鉉雄(지리64-68)·安光允(영문64-68)·柳熙根(사회사업64-68)·李宇鎔(정치64-68)·李徹(사회64-71)·任龍喆(물리64-68)·林雲峰(미학64-68)·趙幸作(치의학64-70)·許瑄(정치64-68)동문 등이 참석했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李芙淵 作



‘구원’ 백토, 투명유, 2×3m, 2007.

〈작가약력〉

- ▲71~75년 모교 응용미술과 졸업
- ▲77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미국 미주리대 박사학위
- ▲개인전 10회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 ▲대한민국 공예대전 운영위원
-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
- ▲서울 현대도에 비엔날레 초대작가
- ▲동아공우회 초대작가
- ▲방산자기박물관 개관 1주 기념초대전
-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전 초대작가
- ▲국립도서관 개관 기념 초대전
- ▲현재 한양대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과 교수

기독교동문회

1백여 동문 경전 서약

기독교동문회(회장 鄭相鶴)는 지난 10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아하우스에서 제2회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李長茂총장·평의원회 朴聖炫의장, 종신대 金仁煥총장, 소망교회 金枝喆목사를 비롯한 1백여 동문들이 참석해 서울대학교회(목사 박흥수)가 추진하고 있는 경건운동

에 동참할 것을 서약했다.

金枝喆목사는 ‘거룩함의 매력’이란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위기는 축복만 강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대인들이 심검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거룩함을 통해 기독교의 매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회 박흥수 목사는 ‘모교 기독교인 보고’를 통해 “현재 1천7백여 명의 교수 중 6백40여 명, 1천여 명의 교직원 중 5백여 명, 3만여 학생들 중 6천여 명이 크리스천”이라고 밝혔다.

기계동문회

崔昇喆회장 선임

기계동문회(회장 蔡方根)는 지난 10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신공학관 118호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오전에 관악산 등반을 마친 동문 가족이 총회에 참석해 신입 회장에 崔昇喆(기계공학66-70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수석부회장을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李奉柱(기계공학67-71 한돌펌프 대표)동문을 선임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河大泓(공업교육69졸)감사를 재선임했다.



한편 기계항공공학부 1학년 재학생 남성민·이영건 군에게 2007년 장학금으로 각각 2백50만원을 전달했으며, 신입 崔昇喆회장(사진 左)이 전임 蔡方根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본회 林光洙회장은 정기총회 찬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하고 축사를 통해 “눈부시게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의 고급정보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일에 동문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아야겠다”고 역설했다.

HPM동창회

‘대통령’ 주제 포럼 개최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HPM)동창회 산하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원장 姜普英)은 지난 10월 16일 서울 소피텔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모교 보건대학원 李承旭원장 등 1백2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연세대 심리학과 黃相旻(심리81-85)교수가 연사로 나와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南〉

수의과대학동창회

60주년 맞아 반려동물 큰잔치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鄭英彩)는 지난 10월 5~7일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수의과대학(학장 朴龍浩)과 함께 관악캠퍼스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동문, 교수,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5일에는 재미한인 수의사회, 마사회, 수의과학검역원 및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 동문들을 초청해 재학생들에게 수의사의 진로에 대해 조언해 주

는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에는 만찬과 함께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온 동문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둘째 날에는 수의과대학 스포필드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식과 자랑스러운 수의대인 시상, 후원금 기탁자 명판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으로 중앙백신연구소의 전신인 중앙전염병연구소와 파견연구소를 창립한 故 尹志炳(54-58)前 동창회장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국어교육과동창회

발전기금에 1억 출연

국어교육과동창회(회장 崔賢燮)는 지난 10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범대 교육정보관과 노천강당에서 1백50여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 창설 6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제1회 자랑스러운 국어교육인’으로 모교 李應百(46-49)명예교수를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李교수는 1955년

국어교육 학술단체인 국어교육연구회(한국어교육학회의 전신)를 설립, 40년 가까이 회장을 맡아 국어교육 발전에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상식에 이어 동창회는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崔賢燮회장은 “고액 출연자 없이 2백50여 동문이 함께 모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천강당으로 자리를 옮긴 동문들은 재학생과 채수정 명창의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모교에서의 가을을 만끽했다.

모교가 그리워, 동문이 그리워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많은 후배들을 뒷바라지한 재미동창회 관악후원회 金 埜(63-67)부회장을 선정했다. 또 봉사상을 제정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RNL바이오 羅廷燦(82-86)대표에게 수여했으며 관악구에서 선발된 중학생 4명에게 스포필드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오후에는 모교 본관 잔디밭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큰잔치’가 연예인 이경규 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 애완견 장기자랑, 삼성 에버랜드

치료견 도우미 센터의 아질리티 시범, 소형견 달리기 대회 등을 개최해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했다.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축하공연에서는 Ensemble Diapason의 목관 5중주 연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남성 중창단 베테글리의 노래와 수의대 동아리 난무, 수의대 밴드 제브라의 공연이 열렸다.

행사 마지막날인 7일에는 2백여 동문 및 가족들이 모교 정문-무너미 고개-농생대 수목원 코스를 걸으며 60주년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약학대학동창회

가족 초청 명랑운동회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金器)가 지난 10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개최한 홈커밍데이 행사에 3백80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울 중구 동문회와 40회 동기회 등도 이날 모임을 가져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李金器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교에 대한 큰 사랑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록 화

려하고, 새롭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너그럽이 웃고 편안히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모교에 도착한 동문 가족들은 교수회관을 출발해 산책로입구-도서관-관악교-제약실습동을 걸으며 몸을 풀었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명랑운동회는 원로·부부·가족경기 등으로 나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李회장이 협찬한 경품 컴퓨터 LCD모니터는 鄭永淑(약학69-73)동문에게 돌아갔다.

鄭英彩회장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동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동창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대학동창회

53·63·73학번 모교 방문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興淑)는 지난 10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동원생활관에서 졸업 30·40·50주년을 맞은 53·63·73학번 동기회 회원들을 초청해 제4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백여 동문들은 생활과학대학, 박물관 등을 돌아보고 은사들을 초청해 감사의 선물을 전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GLP동창회

유명산서 가을 축제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辛東烈)는 지난 10월 27일 동문 가족 70여 명이 경기도 유명산을 등반하며 우의를 다졌다.

오전 10시 유명산 자연 휴양림에 도착한 동문들은 유명산 단풍 축제 전문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산에 올랐다. 오후에는 바비큐 파티로 식사를 마치고 기별 장기자랑 등을 하며 흥겨운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동일방직 徐敏錫(섬유공학61-66·1기)회장이 등산용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GLP동창회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송년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南〉

가을은 풍성한 홈커밍의 계절

간호대학동창회

간호교육 1백주년 기념행사 성황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李倫京)는 지난 10월 16~19일 모교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서 간호대학(학장 尹順寧)과 공동으로 간호교육 1백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문·교수·재학생이 어우러져 홈커밍데이, 기념식 제막식, 박물관 개관식, 기념식, 축하콘서트, 동창의 밤, 학술대회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첫날에는 졸업 30·40·50주년을 맞이한 동문들이 관악캠퍼스를 찾아 모교 투어를 진행했으며 연건

캠퍼스 간호대학에서는 기념식 제막식과 간호학박물관 개관식이 거행됐다. 기념식은 63년 졸업생들이 기증했다. 기념식 제막식에 이어 진행된 박물관 개관식에는 모교 의대 王圭彰학장·成相哲병원장, 치대 金鍾喆학장·張英一병원장, 보건대학원 李承旭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1백주년 기념식과 축하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

임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李長茂총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金花中회장, 국제간호협의회 金義淑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영부인 權良淑여사, 서울시 吳世勳시장, 대한간호협회 金熙子회장 등은 동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尹順寧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교육과 연구의 세계화, 간호 실무와의 통합, 학제간 협력 등의 세 가지 축으로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간호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20명의 동문들과 학술교류를 맺고 있는 8개 해외 대학 학장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이날 ‘서울대 간호교육 1백년사’를 발간해 동문들에



게 배포했다.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콘서트에서는 홍경민, 나무자전거, CAN, 크라운J 등 인기 가수와 사운드립, 소리느낌, 피에스타 등 모교 재학생팀들이 참여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1백주년 행사는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동창의 밤’ 행사로 절정에 달했으며 18~19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국제간호학술대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李倫京회장은 “1백년의 역사를 되새기며 이번 기념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학장님과 교수님, 동창회 임원, 행사분과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행사 이후에도 모교가 세계를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AMPFRI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로 하나되다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 (AMPFRI)동창회(회장 尹煥植)는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3백5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동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尹煥植회장, 모교 보건대학원 李承旭원장, 한국 청소년연구소 朴明潤이사장, 한

국음식업중앙회 高仁植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치어리더의 경쾌한 춤에 맞춰 몸을 푼 동문들은 동·서·남·북 4개팀으로 나눠 축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 피구, 줄다리기 등의 경기에 참여했다. 경기결과 4·8·12·16·20기 동기회로 이뤄진 북팀이 1위를 차지했으며 기별 우승은 20기 동기회에 돌아갔다.

경품추첨을 통해 김종기(14기) 동문이 나노카보나 신일산(14기) 대표가 협찬한 5백만원 상당의 나노카보나 스포츠대를 받는 행운을 누렸다.

이날 행사를 위해 尹煥植회장이 3백만원을 협찬했으며, 서초로얄프라자 呂弼東(1기)대표, 국수사 홍성열(1기)대표, 옛골토성 權太均(6기)대표 등 여러 동문들이 금품을 협찬했다.

경대원동창회

金炳道교수 특강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관훈동 대성그룹 대강당에서 임원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경영대학 金炳道(경영78-82)교수가 연사로 나와 ‘경영학 1백년 역사의 교훈’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ALP동창회

12월 21일 송년회

법대 최고지도자과정동창회(회장 金亮沃)는 지난 10월 27일 첫 등산대회를 열고 동문 40여 명이 경기도 수원 광교산을 올랐다.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등반을 마친 동문들은 盧彰鎬(법

학54-58·3기)동문이 제공한 음식을 즐기며 답소를 나눴다.

ALP동창회는 현재 6기까지 2백4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송년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AFB동창회

11월 17일 등산대회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炳五)는 지난 10월 26~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중앙행사장에서 기금 마련 F/W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크로커다일 레이디, 사라J, 알랭 미끌리, 비키 등의 동문 업체가 참여했다.

동창회는 오는 11월 17일 오전 9시 도봉산에서 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南>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 모임에서 사설 모의고사,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학력 신장을 위한 자율권을 요구하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중심에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姜鎬鳳(서울시교육위 의장·수학교육58-62)동문이 있다.

임기 1년을 앞두고 지난 10월 24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만난 姜동문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나이는 지났지만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교육정책에 맞서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제의 동문

서울시교육위원회 姜鎬鳳의장

姜동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 전문가이다. 40여 년간 평교사부터 교육청 장학관까지 교육현장과 행정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주변인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가’로 알려져 있다. 흡연생 없는 학교 만들기, 정년단축 환원 투쟁, 양천여고의 목동고 개명 등이 그 좋은 예다.

‘개코 선생님’으로 유명

姜동문은 EBS 다큐멘터리 ‘개코 선생님’을 통해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공항중·잠신고 교장으로 재직할 때 학생들의 손에 배인 담배냄새를 귀신같이 알아낸다고 해서 ‘개코’라는 별명이 붙었다. 98년 2학기 서울 공항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첫 날, 학생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姜동문은 아연실색했다.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니...’ 담배 피는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첫 목표가 됐다. 금연지도는 최상의 생활지도 전략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바로 행동에 들어가 흡연학생 현황을 파악했다. 3학년 1백8명의 학생이



조사됐다. 한 학기 내내 소지품 검사, 손·얼굴·머리 냄새 검사를 했다. 흡연 학생들은 매일 1시간 일찍 등교해 姜동문과 함께 교내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도 있었죠. 몇 번 집에 연락을 해서 안 나오면 직접 찾아갑니다. 학생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부모들과 함께 있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도 학생이 등교할 때까지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이런 소문이 학생 사이에 퍼지면서 ‘보통 독종이 아니다. 굶는 척이라도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됐던 것 같아요.”

2학기가 끝나갈 무렵 26명을 제외하곤 모두 금연에 성공했고 졸업할 무렵에는 1백8명 전원이 담배를 끊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姜동문의 추진력은 金大中정부 시절 ‘교원 정년단축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도 발휘됐다.

‘완충장치 없이 갑자기 교원 정년을 단축시켜 무 자르듯 자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하지만 선비 같은 교사들을 집결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전국 교장 모임에서 반대운동을 결의하고 교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를 찾아갔다. 교원들을 집회에 끌어들이 수 없다는 회장의 답변이 돌아왔다.

“두 번을 찾아가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갔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전국 1만5천여 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교총에서 탈퇴토록 하고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문을 ‘뽕’ 차고 나왔죠. 그때서야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교총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켜 4만여 교사를 한 자리로 불러모았다. 정년단축 법안을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들을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한 것은 교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

의장직을 1년여 앞둔 요즘 姜동문은 양성평등 운동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10월 스케줄 가운데 양성평등 관련 세미나가 3~4개 된다. 관련 자료만 해도 10cm 두께의 파일 철에 가득하다.

양성평등을 위해 가장 힘 쏟고 있는 분야

는 繼姓평등. 姓의 대물림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기상조일 테고 나 또한 당장 바뀌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남자와 다를 바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여고의 목동고 개명에도 姜동문의 이러한 양성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다. 姜동문이 이 학교 교장 재임시절, 여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목동여고가 아닌 목동고로 개명한 것은 ‘향후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남학교는 男자를 넣지 않는데 굳이 여학교에 女를 넣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姜동문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다.

“늘 학생들에게 개명 취지에 맞게 당당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육했어요. 영부인보다는 대통령이 되라고 강조했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권하자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정직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58년 입학 첫 시험 중에 한 친구가 커닝을 하다 적발됐어요. 韓梯泳교수님 시험이었는데, 그 친구는 1년 정학 처리되고 전원에게 D학점이 부과됐어요. 큰 충격이었죠. 그러나 그 엄한 교육은 그 당시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되어 일생동안 뇌리에 남아 살아있는 큰 등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후배들은 누구보다 정직해야 됩니다.”

姜동문은 성신사대 부속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강서교육청 장학관을 거쳐 공항중, 잠신고, 목동고 교장을 역임했다. 2002년 SBS 교육상을 수상했다.

(南)



“겨레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자”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4명 표창



개교 61주년 기념식

모교(총장 李長茂) 개교 61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2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증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시설과 李錫光 교육행정주사 등 64명이 30년 근속, 중앙도서관 李泰淳사서주사보 등 69명이 2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또 관악봉사상은 하자인(생명과 학부, 동·하계 나눔 실천단)·이소라(제약학과, 약학대학 봉사동아리)·양, 김희창(전기공학부, 관악별·술교실 학습지도 자원봉사)·신현우(응용생물화학부, 하계 사회봉사)·윤창호(의학과, 의료봉사 동아리)군이 수상했다.

한편 재학생들의 봉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 결과, 경제학부 김준형군이 ‘창신동 언덕길’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 의학과 권준명군이 우수상,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김민주양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해 모교 교수 중 강의내용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교육방법과 자

료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동료 교수들에게 모범이 돼온 교수에게 시상하는 제3회 교육상 수상자에 철학과 白琮鉉교수·수리과학부 金泓鍾교수·화학부 金熙濤교수·화학생물공학부 金榮奎교수(연구비 1천만원 지원)가 선정됐다.

이날 제1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본회 부회장을 역임한 E1具平會명예회장, 국무총리를 역임한 재단법인 호암재단 李賢宰이사장, 삼성전자 尹鍾龍부회장, 해외에서 활동중인 미국 UCLA 치과대학 朴魯禧학장을 선정, 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17면 프로필·수상소감 참조〉

李長茂총장은 기념사에서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에 대해 ‘겨레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대학교’의 꿈과 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해 지원을 더 늘리고 발전기금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사 요지 참조〉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겨레의 대학으로서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의 명문대학으로서 세계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세계 속의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해나가는 큰 꿈을 이루도록 교원,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애교심을 더욱 발휘해 나가야겠다”고 피력했다. 〈축사 요지 참조〉

權壽赫전임총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약대로 잘 진행시키고 실천해 주시는 총장님을 비롯한 총동창회장님과 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며 “지금은 대학에게 국제적 경쟁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서울대의 자존심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 모교 스스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모교 權壽赫·朴奉植·趙完圭전임총장, 李長茂총장, 金信福부총장, 朴聖炫평의위원회 의장, 金孝謙관악구청장 등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해에 처음으로 교수에 대해 ‘예비정년보장제도’를 도입한 자연대는 대학본부가 테뉴어(tenure·정년보장교수)심사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승진 심사를 시행했다.

이에 자연대는 “때가 되면 정교수가 되는 관행을 없애고 연구실적 등이 뛰어난 교수들은 남보다 빨리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승진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榮〉

李長茂총장 기념사 〈요지〉

지난 60년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재 양성과 학문 연구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굳게 자리잡은 기간이라면, 작년 1년은 서울대학교가 미래와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비전을 명확히 설정했고, 또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준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들을 선정해 4개년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미 천명한 바 있듯이, 서울대학교는 올바른 사고와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21세기 창조적 지식 혁명을 선도하는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대학들은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수차례 해외에 나가서 많은 외국대학을 방문하고 80여 명의 외국 대학 총장들과 만나 토론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대학들이 정부와 기업, 동창과 학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철저한 혁신을 통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적자생존의 철저한 교수경쟁 체제를, 일본의 대학에서는 법인화 전환을 통한 긴장감 넘치는 대학 혁신을, 중국과 싱가포르 대학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이뤄지는 대학 혁신과 국제화를, 유럽 대학에서는 국제적 호환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 혁신과 미국식 경쟁 체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시 이러한 혁신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재정은 대학교육보다는 초·중등교육에 집중돼 있는 한편 국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은 10년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저는 우리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사회에 대해 ‘겨레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대학교’의 꿈과 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해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고, 발전기금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林光洙회장 축사 〈요지〉

저는 먼저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려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대 내외에 선포하고 이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착실하게 다져 나가는 李長茂총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전기금 증대, 로스쿨의 대응 전략, 법인화 대책, 국제캠퍼스 건립에 이어 해외 석학교수 영입, 세계 상위권 대학과의 제휴 등 산적한 현안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모교의 위상을 잘 지켜나가고 계신데 대해 우리 모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는 이제 바야흐로 도약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 속에 지난 6월 25일 장학빌딩 착공이 있었고, 3년 후에는 마포 구 회관자리에 서울의 명소가 될 세계적인 동창회관이 들어서게 되며 그때가 되면 동창회 재산이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재학생 1천여 명에게 20억원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모교 교수님들에게도 20억원 이상의 연구활동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총동창회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다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데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교는 ‘겨레의 대학’으로서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의 명문대학’으로서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모교가 세계 속의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큰 꿈을 이루도록 모교 교수,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애교심을 더욱 발휘해 나가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창회의 Motto는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입니다.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서울대인들에게 큰 영광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수 승진 심사에서 ‘유보’ ... 1백47명 중 55명 탈락

모교는 지난 10월 1일 ‘2007년 2학기 교수 승진 심사’에서 전체 승진 대상자 1백47명 가운데 37.4%인 55명에게 승진 유보 판정을 내렸다.

지난 1학기 승진유보율이 33%에서 이번 2학기 심사에는 약 5%증가한 37.4%로 모교 교수 승진 심사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탈락

된 것이다.

이렇게 승진 탈락자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 모교는 “단과대별로 승진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탈락율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공대의 경우 정교수가 되면 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포함되는 국제학술지에 5편이상 논문을 실어야 한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1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프로필·수상소감

LG 성장의 원동력·민간외교관

“서울대가 민족의 위상 빛내주길”

E1 具平會 명예회장

具平會동문은 1951년 모교 문리과대학 졸업 후 1993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LG 창업과 성장의 중역으로서 호남정유 사장, LG상사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6년 본회 부회장을 맡은 후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具동문은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 탁월한 식견과 국제감각을 바탕으로 한국인 최초 세계 최대 민간협력기구인 태평양경제협력회 국제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미경제협력회 회장, 한미재계회의장 등 한국과 재계를 잇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왔다.

수상경력으로는 1982년 금탑산



업훈장,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1997년 체육훈장 청룡상, 벤플리트상(코리아 소사이터티), 1998년 지도자상(아시아 소사이터티) 등이 있다.

수상 소감 <요지>

1947년 경성대에서 학교 이름이 서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학년 때 6·25전쟁이 일어나서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시골의 초등학교 교정에서 전시연합대학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 때 제가 다닌 대학도 아니고 시골의 한 학교 운동장에서 받은 졸업장에 참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 우등상까지 모교에서 직접 주시니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에 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가 전공한 정치에 관련

된 일을 배우면서 사회 경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제분야로 자리를 옮겨 경제 애국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에 전환점을 갖고 느낀 것이 기업 경영에 있어 정부 규제가 많을수록 경영과 기업 환경이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대학기구인 모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많은 규제 속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화를 통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처럼 발전계획과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국한된 국립대가 아닌 세계의 서울대학교로 이 민족의 위상을 빛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정·재·교육계 등 다양한 활동

“나날이 발전의 신기원 이룩하자”

호암재단 李賢宰 이사장

李賢宰동문은 1953년 모교 상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69년 모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李동문은 1961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후 학생처장·사회과학대 학장·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다

각적으로 모교 발전에 전력을 다했다. 1983년 제16대 총장으로 취임, 원숙한 교육 행정가로서 대학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다.

1988년 혼란기에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 혼란을 극복하며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회주의권과 교류 관계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했다. 수상경력으로는 1989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한국경제론’, ‘재정경제학’ 등이 있다.

수상 소감 <요지>

학교에 몸담고 있었지만 세대 교체가 빨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그것도 좋은 상을 주시니 초등학교 때 ‘도지사상’을 받았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떠오릅니다. 어린 나이에 큰 상을 받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제가 모교에 몸담으면서 기억나는 일은 1970년입니다. 그때 사무

처장으로 있으면서 서울대 설치령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설치령은 다른 대학과 차별되는 법령인데 이 획기적인 법령을 새로 제정한 것이 저에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모교 총장으로 재직 당시 학교에 투사들과 관련해 저는 학생들의 제명처분 문제를 보류하면서 거부한 대신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모교의 명성을 굳건히 지키고 나날이 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서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일류기업 성공신화 주인공

“모교의 성장 위해 힘쓰겠다”

삼성전자 尹鍾龍 부회장

尹鍾龍동문은 1966년 모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 그룹에 입사해 1969년 삼성전자 설립에 기여했다. 그 후 미국 MIT Sloan School Senior Executive과정, 메사추세츠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KAIST 테크

노경영대학원 최고정보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尹동문은 최근 10년간 최고경영자로서 경영혁신을 주도하며 삼성전자가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신화를 창조해 냈다.

이를 통해 반도체, LCD, 휴대폰, 컬러TV 등의 한국 전자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2005년에는 수출 1천억불을



달성하며 국가 총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했다.

수상경력으로는 1992년 금탑산업훈장, 1995년 자랑스러운 서울 공대인상, 능률협회컨설팅 TPM

상, 1999년 한국경영자상, 2003년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2005년 헝가리 정부의 십자공로훈장 등이 있다. 또한 2004년 비즈니스 위크지의 ‘세계 최고경영자’, 2005년 포춘지에서 선정한 ‘영향력이 큰 아시아 기업인 1위’, 2006년 홍콩 아시아금융전문월간지 아시아머니의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100명’ 등에 선정됐다.

수상 소감 <요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45년 전 대학에 입학한 그때의 감격이 떠오릅니다. 어렵고 가난한 시기였

지만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저의 작은 꿈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였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 삼성전자 설립에도, 더 나아가 이 사회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제가 서울대 동문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교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꿈나무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치의학 연구분야의 선두주자

“교수님들 열의가 경력개발 초석”

UCLA 치대 朴魯禧 학장

朴魯禧동문은 1968년 모교 치과대학을 졸업해 1970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1978년 미국 조지아대에서 의학 박사, 1982년 하버드대에서 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동문은 미국 서부지역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UCLA 교수로 재직하면서 치과대학 연구부학장·치의학 연

구소장·창상치유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1998년 한국인 최초로 UCLA 치과대 학장에 임명돼 행정·임상·연구분야를 총괄 지휘하며 교육·진료·연구활동·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미국 최고의 치과대학으로 성장시켰다.

수상경력으로는 2001년 국제치과연구학회의 뛰어난 과학자상, 제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 치대 동문상 등이 있다.



수상 소감 <요지>

제가 다닌 60년대 서울 소공동 치대 본과 환경은 매우 열악했지만 교수님들의 뛰어난 가르침과 열의가 제 경력개발에 훌륭한 초석이 돼 제가 1975년도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아와 하버드대에서 공

부하고 UCLA에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전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지금 인류사는 변화하는 시기에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노령화 및 사회의 양극화 등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변화에 대학이 적절하게 연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학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책임감과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무역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물론 시간이 단축되면서 국가간의 장벽

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학은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반 사회로부터 불신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대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에 자금 지원이 줄어들고 간섭이 심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향한 도전 앞에서 세계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모교를 위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신다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계대학 총장포럼 개최

‘서울선언문’ 통해 자율성 강조

모교 소식

지난 10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본부 소회의실에서 5개국 7개 대학 총장이 모여 ‘2007년 세계대학 총장포럼’을 개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연구대학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는 모교 李長茂총

장, 미국 라이스대 데이비드 리브론(David W. Leebron)총장, 호주 시드니대 개빈 브라운(Gavin Brown)총장, 일본 도쿄대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宏)총장·국제연합대 콘라드 오스터왈더(Konrad Osterwalder)총장, 독일 베를린공과대 쿠르트 쿠츨러(Kurt Kutzler)총장·베를린 훔볼트대 미하일 린사이트(Michael Linsheid)부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서울선언문’에는



좌로부터 미국 라이스대 데이비드 리브론 총장, 독일 베를린공과대 쿠르트 쿠츨러 총장, 모교 李長茂총장, 일본 국제연합대 콘라드 오스터왈더 총장, 호주 시드니대 개빈 브라운 총장,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미하일 린사이트 부총장, 모교 宋虎根대의협력본부장 <대학신문 사진제공>

▲학제간 융합 지식 구축(Construction of Inter-disciplinary Knowledge) ▲국제화(Globalization) ▲거시적 문제에 주목

(Tackling the Big Issues) ▲자율성(Autonomy)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명시돼 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앞으로 장

기적이고 커다란 문제에 도전해 인류에 도움이 되고자 ‘서울선언문’을 마련했다”며 “세계 많은 학자들이 협력해 국제적 차원의 지식을 체계화하고 큰 문제에 도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호주 시드니대 총장은 “일본의 경우 정부가 대학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속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7개 대학 총장들은 오전에 열린 강연회에서 대학간 네트워크 구축, 세계화 전략, 연구중심대학의 조건 등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黃瓊植교수



林玄鎭교수



梁彰洙교수



李根교수



張世進교수

철학과 黃瓊植교수 등 5명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 선정

지난 10월 9일 모교 철학과 黃瓊植(철학66-70)교수, 사회학과 林玄鎭(사회67-71)교수, 법학부 梁彰洙(법학70-74)교수, 경제학부 李根(경제79-83)교수, 고려대 張世進(경제80-84)교수가 한

국학술진흥재단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에 선정됐다.

학술진흥재단은 한국의 인문사회분야를 대표할만한 연구성과를 산출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06부터 국제적인 지명도와 세계적인 연구경쟁력을 갖춘 우수학자를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백4명의 신청자 중 연구업적(50%)과 연구계획서(50%)를 종합 평가해 두 측면 모두 우수한 연구자 6명이 선정됐으며, 그중 5명이 서울대인이다.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들은 5년간 매년 3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국제대학원 10주년 행사
“많은 성과...세계로 진출”

국제대학원(원장 朴泰鎬)은 지난 10월 23일 관악캠퍼스 소전국 제회의실에서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모교 李長茂총장·국제대학원 朴泰鎬(경제학71-75)원장, 주한 싱가포르 주아 타이 경(Chua Thai Keong)대사를 비롯해 교수 및 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와 새로운 비전(Achievements and New Vision)’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차원장은 “모교 국제대학원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졸업생의 대부분이 국제업무 분야에서 일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동아시아 및 세계의 국제 기구와 기업들로 진출해 국제학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이어 李長茂총장은 “모교의 국제화에 앞장서는 국제대학원의 ‘국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업적들이 매우 자랑스롭다”며 “앞으로도 타 대학원과 구별된 제도를 바탕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뤄 모교의 세계화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㉔

치과대학 朴明鎭 博士像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대학 본관 앞에 세워져 있는 故 朴明鎭(경성 치전28졸) 博士像. 치과대학동창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87년 11월 건립했다. 朴明鎭박사는 모교 치대 초대 학장,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유언으로 사유 재산 전부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기증해 치과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학술교류협정 체결
UC머시드 강성모총장



모교는 지난 10월 22일 관악캠퍼스 본부에서 미국 머시드 캘리포니아대학(이하 UC머시드) 강성모(Steve Kang)총장(사진)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모교는 UC머시드와 공동연구·심포지엄·교수 및 학생교류·자료공유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총장은 “서울대는 국제화 대학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서울대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나친 관심이 서울대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정을 체결한 후 강 총장은 “서울대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미국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榮>

재학생의 소리

“선배님, 우리의 멘토가 돼주세요”



姜 聲 泰
(기계항공공학01입)
‘공부의 신’ 대표

공신(www.gongsin.com) 대표를 맡고 있는 姜聲泰입니다. 지난 추석 때 방송에 출연한 후 공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명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신의 원래 의미는 ‘공부를 신나게’, ‘공부를 새롭게’였는데 언제부터 ‘공부의 신’이란 이름으로 네이버 사전에 신조어로 등록되더니 책과 방송도 이 제목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사이트를 열게 된 동기는 소개한 의미와 같이 후배들이 공부를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기초교육원에서 개설한 말하기 수업 수강 중 ‘2008년 대입제도’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중·고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장남이다 보니 스스로 어렵게 공부해야 했던 경험도 공신을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후배들은 나 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죠.

공신의 멤버는 현재 3기까지 43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교 재학생들이 절반 이상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활동은 동영상강의, 게시판 상담, 교재리뷰 등의 온라인 활동과 중·고생 초청 강연, 지방학교 강연, 방송언론 출연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도 출간해 중·고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축이 돼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 애로점도 많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이다 보니 일반 웹사이트보다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동생(姜聲永·전기공학05입)의 장학금과 책 인세 등으로 버텨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과 관련해 경험이 부족한 아마추어라 10만 회원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영상 촬영에서부터 사이트 편집까지 소수인원이 하기엔 벅찬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신을 통해 성적이 올랐다, 강의를 보고 눈물이 났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자동차를 좋아해 기계항공공학부에 입학했는데, 공신을 운영한 후 목표까지 바뀌었습니다. 졸업후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할 계획입니다. 공신이 제 인생까지 바꿨습니다.

학우들 중에는 서울대는 동창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공신에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학생마다 멘토가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동창회에서 이 일을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콩트 릴레이

싸가지 K여사의 ‘辯’

金 榮 義

(사회교육49-53)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월담하는 기분은 그야말로 스릴 만점이었다. 들고 있던 핸드백은 담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그 담장을 붙잡고 말을 타듯해야 담은 넘어갈 수가 있었다. 평소 퇴행성 무릎관절로 뒤통뒤통 걷는 처지에 까딱 잘못하면 큰 변을 당할 게 뻔하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발을 댄다. 간편한 바지차림도 용감한 월담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 그 잘라, 뜻밖에도 어려서 땀을 넘던 추억까지 되살아나 젊음을 되찾은 듯 몸과 마음이 거뜨해지기도 했다. K여사는 누가 보지나 않았을까 주변을 조심스레 돌아봤으나 천만다행으로 나뭇가지가 얼기설기 터널을 이룬 오솔길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불과 몇 발자국 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이마의 땀을 걷어 갔다. 이렇게 시원한 숲길이 가까이 있었다니,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띤다. 백미터 남짓한 짧은 거리지만 집에서 버스나 전철을 타러 가는 이 지름길은 작렬하는 暴炎에 짓눌려 헐떡이던 가슴에 시원한 공기와 녹색향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은 ‘ 짹짹 ’거리며 여사의 모험을 격려하듯 지저귀었다. 하늘을 향해 겹겹이 반쳐 든 작은 손바닥 같은 푸른 잎들은 싱그러운 향기로 그녀를 포근히 감싸 안아 마치 소금에 푹 저린 배추처럼 더위에 지쳐 늘어진 온몸을 순식간에 되살려준다.

지난 해 봄이었었다. 반상회에서 ‘뒷담

의 한 결을 열고 출입구를 만들면 어떻게냐’는 논의가 있었다. 團地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찬성을 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에 가까운 여사의 거처인 2동과 그 옆 3동의 전 家口는 반대를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두동이 예정된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선호되는 요즘 풍토라 한들 이런 일을 다수결로만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였다.

담을 뚫면 출입구 가까이 놓일 두동의 주민들이 불량상인이나 무단 침입자를 억제할 장치 없이는 절대불가를 외쳐서 겨우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 (서양화02-07) 동문

무산시켰던 터였다. K여사가 ‘절대반대’의 편에 섰던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한데, 어느 새 누군가가 출입구를 내려던 그 곳에 통나무 토막을 안으로 겹겹이 쌓아 올려 계단을 만들고, 밖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된 맥주병 박스를 받쳐둬 담장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아파트 뒤편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무들이 어느덧 10여 년이 넘어 제법 하늘을 가리는 숲을 이뤄 이끼 낀 그늘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섭씨 30도가 넘나드는 뜨거운 어느 낮, 매사에 원칙주의를 고집하는 여사의 남편까지도 ‘한 번 그리로 지나가 봐’하며 은근히 권한 바람에 그동안 망설이던 마음을 누르고 그 곳을 향해 걸어들어간 것이다. 뽕약별을 피해 숲 속 오솔길에 들어서니 그 시원하고 상쾌함은 말할 것도 없었고 지름길이니 시간도 절약돼 담을 넘는 약간의 거북함은 오히려 가벼운 흥분까지 맛보게 한다.

이렇게 시작된 숲 속 오솔길 모험 나들이에 여사는 요즘 부쩍 재미를 붙였다. 실인즉, 입학원서에 제1지방 건축, 제2·제3지방 모두 건축이라고 쓰더니 기어이 그 과를

전공한 막내 녀석이 고2되던 해에 설계를 해서 남편이 손수 지휘해 지어 20년을 살던 2층집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거기 아담한 마당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었고, 감나무를 비롯해 대추, 모과, 포도나무 등의 그 수확마저도 즐기며 아이 셋이 대학을 나와 결혼까지 마친 우리 집 애환의 역사가 송두리째 얹혀 있는 추억이 되살아나 그리움에 흠뻑 젖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 누가 ‘교육자라는 저 사람이...’하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양을까 늘 조마조마한 양심의 발동을 느껴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너도 별수 없지 뭐냐? 세상에 싸가지가 따로 있단가. 남이 한다면 못하게 막고, 남이 해놓은 것은 나 몰라라 잘도 넘어 다니니. 쫓 쫓 쫓, 좋은 나이를 하고...’ 스스로도 어이없고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흔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남만이다.’ ‘남이 알뜰하면 구두쇠고, 내가 하면 알뜰한 절약가’ ‘남이 하면 변덕쟁이, 내가 하면 순발력 있는 사람’이란 말을 쉽게 들 하지만 그야말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를 두고 하는 싸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녀는 나무숲 오솔길을 거닐 생각을 하면 덧없이 가슴이 설레고 상

‘버릇이 없다’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등의 가벼운 의미로 많이 쓰이며 또 ‘마음 씀이 장래희망이 어둡다는 뜻, 식물로 비유해 자라나는 새싹이 곧바르고 충실하지 못하고 뻗어지고 꾸부러져 장래 충실한 나무가 되지 못하고 열매도 거뭇질지 의심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행동과 심성이 장래성이 없는, 뭉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인다는 것이다.

때로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교통체증이 심해 약속시간이 빠듯해지면 좌석에 앉았어도 안절부절 몸이 달아오르며 속마음으로 운전기사를 재촉하게 된다. 비록 입 밖에 내진 못하지만 내심 ‘신호를 좀 여겨서라도 빠져나가 줘요...’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자신이 운전을 하거나 건널목을 지날 때, 신호에 걸린 차들이 억지로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띄면 ‘저 싸가지 봐!’ 하고 비아냥거리게 되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 받을 만큼의 교육과 교양을 갖추며 제법 문화시민인양 처세하는 신분이건만,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아니고 무엇일까 생각하니 스스로 서글프고 민망하며 씁쓸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인 자화상이 비단 나만의 것일까.

K여사는 부지런히 자기합리화에 머리를 쓴다. 향간에 쉽게 접하는 무단횡단, 불법 쓰레기투기, 불법 갓길운전 등 갖가지 싸가지들의 횡행은 방지하기 위해 등장된 몰래카메라. 게다가 심지어 사회진출을 위한 허위학력 사대까지 그 사례를 이루 들 수 없는 것이 요즘 우리의 세대가 아니던가.

만일 이곳에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됐었다면 나는 영락없이 찍혀 망신살이 뻗었을 게 분명하다. 그러니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평범한 이치를 새삼 되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대체 인간은 어느 수준에 가야 이 ‘싸가지 근성’을 멈추게 되며, 품을 지향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 될까. 준법 정신이 강하고 누구보다 양심적이라 자부하던 내가 이러한 몰골이니 하고 몇 번이고 자신의 가슴을 쳐본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일까, 예년에 없던 고온다습한 아열대의 긴 여름 탓에 그 길 아닌 숲 속 길을 월장하며 지나다니 싸가지 주민이 많았던 모양이다. 며칠 전 반상회에서 다시 ‘뒷담에 출입문을 내자’는 문제가 제기됐다. 많은 주민이 이번 더위와 함께 양심적 고통과 월담하는 불편을 감내한 아픔이 있었던 걸까. 단지의 전 가구가 완전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이 가을에는 아마도 그 숲 속의 오솔길은 아담하고 작은 뒷문과 연결돼 마을주민에게 사랑 받는 예쁜 풀밭길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비록 아직 숲 속의 문이나 길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젠 땀땀하게 누구의 눈치도 살필 것 없이 가슴을 펴고 그 오솔길을 지나며 담장을 넘게 됐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가.

K여사는 지금 오솔길에 멈춰 서, 짙게 덮인 진초록 성하의 나뭇잎을 우러러본다. 갖가지 나무들이 서로 얹혀 함께 서 있어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와 자태를 유감없이 지키며 아우려져 보다 넓은 품으로 인간에게 무수한 덕을 베푸는 나무들, 자연은 언제나 사람의 고개를 숙이게 한다.

깊은 호수처럼 깊고 푸른 우리의 가을하늘에 스쳐 가는 바람처럼, 그녀는 빈 가슴으로 가을하늘을 떠도는 한 점 바람이고 싶어지는 스스로를 느낀다.

“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남만이다.’

‘남이 알뜰하면 구두쇠고,

내가 하면 알뜰한 절약가’

‘남이 하면 변덕쟁이,

내가 하면 순발력 있는 사람’

이란 말을 쉽게 들 하지만

그야말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를 두고 하는

싸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

동문기고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내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일본어는 이제 필요 없고 영어를 배워야 하니 YMCA에 가서 영어를 배우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 부모님의 한 마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 후에 깨닫게 됐다. 다행히 영어에 취미를 느낄 수 있었고 집에 있던 일본 Kenkyusha(研究社)에서 낸 참고서가 도움이 됐다. 학교에서보다 YMCA에서 영어를 훨씬 더 많이 배웠다. 그리고 보니 영어에 관한 한 처음부터 과외를 통해 배운 셈이다.

그 당시 Ono Keijiro(小野圭次郎)의 ‘영문법 연구’, ‘영문해석법’, ‘영작문연구’ 등은 아주 중요한 교재였고 그런 강의에 아주 열성을 내어 배웠다. 특히 미국 선교사의 집에 가서 영어성경을 배웠던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것이었다. 학생들 중에 발음이 좋은 사람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드디어 ‘원서’라고 할 수 있는 Ave Bury의 ‘The Use of Life’나 Washington Irving의 ‘The Sketch Book’을 공부하게 돼 상당한 경지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했다.

간혹 어떤 학자 같은 분이 Times나 Newsweek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나는 언제 저런 잡지를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을까 매우 부러워했다. 조실부모한 나는

사대 영어교육과 金龍煥교수님을 기리며

대학 1학년 때 돈을 좀 벌어서 목적으로 ‘근면학관’이란 간판을 우리 집 2층에다 내걸었는데, 친지 한 분이 신문에 광고를 내주셔서 몇몇 학생들이 찾아왔다. 그 중 제일 도전적이었던 일은 Times지를 강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대한 사건을 활용해서 문장해석에 열중했고 신문기사 내용 등을 참작했다. 아마 1951년에 내가 살던 고을에서 Times지를 강의한 사람은 내가 효시로 기록됐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감에 따라 선생님들이 해석을 시켜준 것이 학생들의 실력을 많이 향상시킨 일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고급반에 갈수록 희망자만이 해석을 자원해서 하게 돼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교수법으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다.

대학 3학년이 됐을 때 金龍煥교수님의 ‘시사영어’를 수강 신청했다. 교수님은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Times지를 교과서로 쓴다고 말씀하셨고, 일정한 페이지를 배당해 내용을 파악한 후 차례로 발표하게 하셨다. 물론 집에서 미리 공부해 자기가 맡은 부분을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읽고 해석하는 일이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시사영어에 관한 강의는 한 마디도 안 하셨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됐다. 지금도 선명하



金 順 信
(영어교육51-00)
아주대 명예교수

게 기억된다. 마침 내가 읽은 것은 프랑스의 망데스 외상에 관한 기사였다. 약 두 페이지에 달하는 길고 심층적인 내용의 기사였다. 대학 1학년 때 Times지를 강의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열네 살 때 웅변대회에서 1등한 실력으로 남다른 웅변적인 음성과 자신감 있게 발표한 것이 주효했는지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은 “연극의 막이 내린 것 같구만!”이란 말씀을 해주셨다. 교수님이 해석을 잘했다 또는 못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으나 이 말씀을 큰 칭찬으로 여겼다.

당시 교사나 교수가 학생을 칭찬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중학교 국어시간에 국어교과서를 낭독했을 때 선생님이 “네 목소리가 아주 명쾌하다”는 말씀이 최고의 칭찬으로 기억되고 있을 정도다.

물론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도 많이 하셨지만,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영작문과 시사영어는 학생들의 발표력과 필관에 쓴 문장구성을 평가하는 시간으로 삼으신 것으로 생각된다. 작문 역시 학생들이 순번을 정해서 집에서 써온 자유 작문을 필관에 적어 발표하게 하고, 동료 학생들의 평가를 듣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됐으며 이때도 교수님은 한 마디도 안 하셨다. 그렇다고 학생 중 누구 하나 교수님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다. 지금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동료 학생의 영어 작문실력을 보기 위해서 이 과목을 신청한 줄 아느냐?”고 항의하지 않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학기말 시험에 시사영어나 영작문 시험이 공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발표한 것이 시험점수로 연결되는 것을 훨씬 후에 알았다. 金龍煥교수님은 내게 A를 주셨다. 그러므로 “연극의 막이 내린 것 같다”는 말씀은 요새말로 Excellent의 뜻이었던 것이다. 가장 공정하게 구두발표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철밥통 우화를 신화에서 끌어내릴 때

지난 10월 9일 서울시청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吳世勳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주요 개혁과제로 추진해오던 신인사시스템에 따라 지난 4월 퇴출 후보로 선정된 공무원 1백2명 가운데 24명이 정말로 옷을 벗게 된 것이다.

이른바 ‘철밥통’을 잃게 된 이들은 지난 6개월간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속돼 불성실하고 무능했던 공직생활을 반성하며 재교육을 받았다. 이런저런 정신교육과 함께 공원에서 잡초를 뽑고 배수로에 쌓인 쓰레기도 치우는 등 책상머리에서 펜이나 굴리던 공무원들에게는 그야말로 ‘형극’의 세월이었던 셈이다.

퇴출된 공무원들 가운데는 재교육의 과정에서 심한 술버릇을 버리지 못해 말썽이 됐던 고시출신 엘리트 공무원도 있었고, 30년 이상 한글을 모른 채 근무해오면서도 한글 배우기를 끝내 거부한 기능직 공무원도 있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정년이 보장돼 있고 퇴직한 다음에는 안정적인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당연시해온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들 24명의 퇴출이 커다란 충격이자 불안감으로 다가왔을 법하다. 예상했던 대로 공무원 노조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격라고 즉각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의 이 같은 작은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조직으로 눈길을 돌리면 사정은 한참 달라진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아직도 일에 사람을 배치하기보다는 머릿수를 무작정 늘

려놓고는 없는 일도 만들어 사람에게 꿰맞추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듯 하다.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공무원 수만 6만 명 가까이 된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에게는 열성적인 팬클럽으로부터 느끼는 위안 못지 않게 직제상 명령체계의 사슬에 묶여있는 관료조직이 그나마 든든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은 세계화와 무한경쟁이라는 화두에 끌려 다니면서 과거보다 더욱 민주적인 정치권력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와 상실감이 증폭돼 나타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국부를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팔아먹는 데 앞장서는 직업군이 가장 선망하는 최고의 직업으로 떠올랐고,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가뿐히 넘어선다는 뉴스도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뿐만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글로벌 마인드’가 강조되면서도 전혀 ‘글로벌’하지 않은 후진적인 요소가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삼성전자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9급·7급·5급으로 나눠 뽑는다는 말을 아직은 듣지 못했다. 바로 지난 세기 초부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전근대적인 공무원 채용제도가 정말 문제다.

간혹 일삼대화나 TV드라마, 심지어 신문이나 방송 기사에서조차 변호사가 되기



李 秉 植
(계산통계86-91)
YTN 사회2부 차장

위한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을 사법고시라고 표현하는 것을 접하곤 한다. 합격자 전부를 공무원인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하던 시절에는 맞는 이야기겠지만 지금은 물론 다르다. ‘고시’를 정의하자면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온 고급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가 아닌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적어도 ‘상고’ 출신 대통령이라면 공무원의 귀전을 시작부터 가려 뽑는 후진국형 제도에 메스를 제대로 댈 줄 알았다. 사법고시가 아닌 사법시험을 거쳐 서울대 법대 출신이 즐비한 법조계에서 나름대로 성공신화를 이룬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면 조선시대 과거시험 같은 고시제도를 과감하게 없애줄 줄 알았다.

어찌 삼성전자뿐이겠는가? 우리나라 유

수한 대기업에서는 대부분의 직원을 대졸 신입사원 공채로 충당한다. 능력을 인정받고 의욕적인 신입사원은 동기들보다 더 먼저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업계의 별이라는 이사 자리도 차지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말단직원은 말단직원대로 대리는 대리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서열을 구분해 따로 뽑는 식이다.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히 여겨온 것들도 살짝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제도도 없다.

다시 철밥통. 이제는 사전에도 나올 법한 ‘철밥통’이라는 말은 직업의 안정성에 기대어 무사 안일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빗댄 말이다. 자질 측면에서 관이 민에 우선하던 시절에는 관행쯤으로 치부됐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민이 웬만한 관보다 더욱 뛰어날 뿐더러 급여를 포함한 관의 근로조건은 오히려 민을 넘어서기도 한다.

참여정부 들어 ‘장군의 계급장을 떼고 병과도 모두 없앤다’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군대식으로 병사와 부사관, 장교를 따로 뽑는 공무원 채용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경쟁을 통한 진정한 체질 개선을 이루기 힘들다. 1백m 경주도 마라톤도 출발점이 다르다면 의미가 없다.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경쟁의 대열에 서게 만드는 동기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혁, 이제는 철밥통의 우화를 신화에서 끌어내려야 할 때다.

동 정

수 상

▲宋仁相(경성고상35졸 효성 고문·한국능률협회 명예회장)=지난 10월 2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연수회에서 국제로타리 영예상 수상.

▲朴鍾大(국어교육52-56 前시조 시인)=지난 10월 17일 서울 동송동 흥사단에서 시집 '눈맞추기'로 시조 문학사가 제정한 제25회 한국시조문학상 수상.

▲金后蘭(가정교육53집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지난 11월 9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수여하는 제7회 비추미 여성대상(달리상) 수상.

▲崔喜準(행정54-59 한국대중음악연구소 이사장·가수)=지난 10월 6일 경기 군포문화예술회에서 제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대상 수상.

▲朴容玉(사학55-59 前성신여대 교수)=지난 11월 1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제18회 韋庵 張志淵상(한국학부문) 수상.

▲金東虎(행정56-61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인 지난 10월 6일 프랑스의 밤 행사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훈장 오피시에' 수훈.

▲梁承圭(행정56-60 세종대 총장)=지난 10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내 보험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2회 대산보험대상 수상.

▲韓永愚(사학57-62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한림대 특임교수)=지난 11월 2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3회 耕巖학술상(인문사회분야) 수상.

▲張大錫(축산학58-62 쌍용농장 대표)=지난 11월 9일 제1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宋相現(법학59-63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지난 10월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회 자랑스러운 코넬동문상 수상.

▲南宗鉉(광산학67졸 고려대 교수)=지난 10월 12일 한국경제신문 본사 다산홀에서 제26회 다산경제학상 수상.

▲金聖二(사회사업65-69 이화여대 교수)=지난 10월 19일 한·러 사회복지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표창 수상.

▲表完洙(영문67-75 YTN 사장)=지난 10월 11일 중앙대가 제정한 제19회 중앙언론문화상(방송영상부문) 수상.

▲韓圭煥(기계공학68-72 현대모비스 부회장)=지난 10월 15일 한국능률협회에서 수여하는 2007년도 경영품질대상 수상.

▲南榮祐(지리교육68-75 고려대 교수)=지난 10월 10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도시의 날 제정 기념식에서 도시학술상 수상.

▲李 哲(사회69-88 코레일 사장)=지난 10월 15일 한국능률협회에서 수여하는 2007년도 경영품질대상 수상.

▲曹尙鎬(경영69-73 파리크라상 사장)=지난 10월 15일 한국능률협회에서 수여하는 2007년도 경영품질대상 수상.

▲裴仁俊(철학70-74 동아일보 논설주간)=지난 11월 1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제18회 韋庵 張志淵상(언론부문) 수상.

▲鄭忠始(화학공학72-76 오미아코리아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0월 15일 한국능률협회에서 수여하는 2007년도 경영품질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품질경영부문) 수상.

▲姜 薰(법학72-76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지난 10월 11일 제11회 e비즈니스 대상 시상식에서

산업자원부 장관표창 수상.

▲徐廷旭(의학74-80 모교 병리학교실 교수)=지난 10월 11일 제11회 e비즈니스 대상 시상식에서 근정표창 수상.

▲鄭文淑(보대원75-77 경북대 명예교수)=지난 10월 18일 서울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회가 수여하는 제42회 용신봉사상 수상.

▲金斗植(법학76-80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지난 10월 12일 정부의 국제통상과 관련한 협상과 분쟁에 법률 자문을 해

온 공로로 산업표창 수상.

▲朴南燦(경영80-84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10월 11일 제11회 e비즈니스 대상 시상식에서 산업자원부 장관표창 수상.

▲林春成(산업공학81-85 연세대 교수)=지난 10월 11일 제11회 e비즈니스 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 수상.

▲陳銀淑(작곡81-85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작곡가)=지난 11월 2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3회 耕巖학술상(예술분야) 수상.

▲徐丘一(의학84-90 모델로피부과 원장)=지난 9월 26~30일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제15회 세계모발이식학회

(ISHRS)에서 '모발이식에서 제모레이저를 이용한 가는 머리 만들

기'로 포스터부문 2등상 수상.

▲배남경(서양화91-95 서울여대 강사)=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열린 제5회 러시아 국제관화 비엔날레에서 1등상 수상.

▲李重根(AMP 5기 부영 회장)=지난 10월 17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응웬 티 주안 베트남 부주석으로부터 우호훈장 수훈. 또 24일 라오즈 정부로부터 일등훈장 수훈.

▲朴龍浩(ACAD 48기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중앙회장)=지난 9월 29일 전방지역 청소년 안보체험 활동을 통해 국가안보관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육군 제5군단장으로부터 감사장 수상. 또 10월 14일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청소년위원장 표창장 수상.

▲梁炯南(iIP 2기 에듀윌 대표)=지난 10월 11일 제11회 e비즈니스 대상 시상식에서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수상.

인 사

▲俞東濬(잠사56-60 한국단미사료협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10월 18일 국립수의과대학검역원 1일 명예검역원장에 위촉돼 검역·검사 업무 처리.

▲李正子(독문59-63 前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상임대표)=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창조한국당 공동대표에 선출.

▲李清洙(정치59-63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지난 10월 9일 국내 민간 최대 장학재단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의 사무총장에 임명.

▲鄭 光(국문62-66 前고려대 교수·우석대 한국학연구원장)= 지난 10월 15일 국제 고려 학회(ISKS) 제7대 회장에 취임.

▲李命默(의학69-76 동국대 일산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일산병원장)= 지난 9월 20일 동국대의무부총장·의료원장에 취임.

▲李鎭浩(의학76-82 동국대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지난 9월 20일 동국대 제3대 일산병원장에 취임.

▲吳延恩(건축86-90 前김&이 건축사사무소장·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지난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도시디자인실장에 선임.

행 사

▲李信子(응용미술50-55 우덕문화원장)=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조소과 출신인 차경진(86-92)·李慧旼(88-92)·노 준(89-93)·延技栢(93-00) 동문 등의 작품으로 'Hard & Soft' 기획전 개최.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분회 부회장)= 지난 10월 9일 경원대 국제어학원에서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개원식 개최. 또 15일 미래관 앞 잔디광장에서 경원대 통합 1주년 기념 비전 선포 및 비전타워 기공식 개최.

▲金容燮(식물54-63 호주 합기도 협회장)= 지난 10월 18일 오후 7시 30분 호주 멜버른 Powerhouse function Center에서 호주 합기도 30주년 및 세계평화운

동재단 12주년 행사 개최. 이날 曹昌範(법학65-69)주호주 대사를 비롯해 호주 정·재계 지명인사, 교민 등 4백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룸.

▲吳東一(작곡54-58 한국작곡가회 상임고문)= 지난 10월 27일 서울 강남구민회관 연주홀에서 열린 '수'뮤직아카데미 페스티벌에서 가곡 작품 선보임.

▲鄭玩鎬(생물교육58-63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 지난 10월 27~2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도 전국 시도의 우수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학 싹 큰 잔치' 개최.

▲金好俊(사회61-6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분보 논설위원)= 지난 9월 29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고려인 定住 70주년 기념행사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뒤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인문대학에서 인권을 주제로 강연.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문학의 집·서울에서 1950년대 자유문학을 비롯한 소장하고 있는 문학지 1백권(초간본)으로 전시회 개최.

▲朴憲烈(화학공학67-71 중앙대 교수)= 지난 11월 2일 서울 한글학회회관에서 '힐텍을 활용한 국가발전 방안 탐구'라는 주제로 제3회 힐텍포럼 개최.

▲李東植(영어교육72-76 KBS 부산방송총국장·분보 논설위원)= 지난 11월 2일 서울 인사동 쌈지길에서 한국문화의 특질과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가능성을 집중 조명한 '절리꽃과 된장' 출판기념회 개최.

▲趙成憲(행정원72-74 前안성 군수)= 오는 2009년 5월 서울 반포동에 신축되는 가톨릭대 새 병원 이름 공모전에 응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당선.

▲張志祥(경제74-78 경북대 교수·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지난 10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컨버전스시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 개최.

▲韓蕙慶(회화75-79 한국미협 회원)= 지난 10월 3~9일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조화'를 주제로 여섯 번째 개인전 개최.

▲尹洪根(정치76-80 서울산업대 교수)= 지난 10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 정보통신시장의 현황과 정부정책'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84졸 경원대 겸임교수)동문 등과 함께 '과르텟21' 제30회 정기연주회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한겨레신문 스포츠부 문 편집장·아시아기자협회장·분보 논설위원)= 오는 11월 29일 서울 관훈동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2007년 아시아기자협회 총회 개최.

▲林慶園(기악81-85 성신여대 교수)= 지난 11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올해 독주앨범을 출반한 기념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林聖勳(기악85-89 부천시향수 석·바수니스트)= 오는 11월 19일 서울 신사동 장전아트홀에서 클라리네스트 桂嬉禎(기악88-92)·호른니스트 李碩堧(기악90-95)동문 등과 함께 목관5중주 I-Group '만남시리즈II' 개최.

▲崔智淵(기악88-92 협성대 강사)= 지난 11월 11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趙美衡(기악96-00 국민대 강사)동문 등과 함께 비올라 4중주 '과르텟 브라제' 정기연주회 개최.

▲千容宅(AMP 31기 고려화사회 희망재단 이사장)= 지난 10월 19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OECD 고령사회전략과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미국 와서는 안 될 사람,
오면 행복할 사람

— 李重熙 지음



2004 년 미국 중앙일보 신인문학상(논픽션부문) 수상자인 李重熙(섬유공학50-57 스탠다드테스팅&엔지니어링 대표)동문의 미국 이민 성공기.

李동문은 모교 졸업 후 한국조폐공사에서 근무하다 1962년 단돈 45달러를 가지고 도미, 무일푼으로 고생하며 캘리포니아주립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USC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인생역경을 딛고 일어난 입지적인 인물.

부시 대통령 자문위원, 연방 공무원 20년 생활, RCH 환경연구소장·식품연구소장까지 지내며 미국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李동문은 “미국은 수천 수만 가지의 직종이 있으며 정직, 근면, 절약, 노력 그리고 명확한 꿈만 있으면 출세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교훈을 주고, 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들에게 지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계간문예刊·값12,000원>

세상을 뒹고 있다

— 金貞姬 지음



1988 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등단한 金貞姬(약학 57-61)동문의 시집.

‘뒹고 있다’, ‘바로 그때’, ‘삶은 오락이다’, ‘길 따라 바람 따라’ 등 4부로 나눠진 이번 시집에서 金동문은 도시의 일상적 삶을 토대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이국을 넘나드는 큰 공간적 보폭 속에서도 시인은 성찰과 관조의 시선을 놓지 않고 있다.

이번 시집에는 金동문의 다양한 정서를 여러 가지 어법과 시적 대상을 통해 의욕적으로 보여준다. 그 속에서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고 자아의 본질을 발견하려는 시인의 몸짓을 느낄 수 있다. <한국문연刊·값6,000원>

제3기 인생 길라잡이

— 崔聖載 외 지음



모교 사회 복지학과 崔聖載(사회사업 66-70) 교수 등 16명이 노인 건강 및 생활과 관련된 편집한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다. ‘제3기 인생 길라잡이 시리즈’(전20권)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제3기 인생’ ‘우리 몸의 노화’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장수를 위한 구강관리’ ‘제3기 인생, 디지털 날개를 달자’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 등 6권이 먼저 나왔다.

여기서 제3기는 교육기(제1기)인 10~20대와 직장생활기(제2기)인 30~50대를 지나 50대 이상이 맞게 되는 은퇴기를 가리킨다. 시리즈는 50대 이상이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건강한 은퇴기를 보내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짜여진 일종의 예비 노인 교재라 할 수 있다. <서울대출판부刊·값 각권 5,000원>

똥 이야기

— 車漢 지음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 모두가 더럽다고 피하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 의학과 신학을 통해 만나보는 똥에 대한 모든 것.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홍보실장 겸 소아청소년과 주임교수인 車漢(의학78-82)동문이 자신의 전공인 소화기를 살려 배설물과 몸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에 성경과 신앙의 세계까지 넘나들며 재미있고 구수한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 배설물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통찰하기도 한다. <라운누리刊·값7,000원>

지식과 부의 이동

— 金聖煥 지음

최근 시그마테크놀로지 金聖煥(전기공학69-76)사장이 ‘소프트웨어 산업혁명을 통한 지식과 부의 이동’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金동문이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So-



ftCPU의 탄생 배경, 정의, 기대 효과, 소프트웨어 산업혁명 등이 담겨 있다.

金동문은 “SoftCPU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산업혁명이 시작될 것이며,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설계, 제작, 품질관리 및 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의 말미에는 SoftCPU의 기술 설명과 컴퓨터 및 관련기술의 역사 등을 부록으로 실었다. <세창미디어刊·값15,000원>

바다칸타타

— 朴鍾圭 지음



수필계의 게릴라 같은 존재라고 불리는 朴鍾圭(응용미술 69-73)동문의 첫 에세이집.

이 책은 朴동문이 바다와 함께 국내외 여행, 특히 아프리카 종단 여행에서 체득한 지혜를 소설적 기법을 채용해 풀어나가고 있다.

朴동문은 운전자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이 책에 실린 작품 중 12편을 선정, 성우가 낭독한 CD를 제작해 함께 담았다. 또 책 표지를 한 권 한 권 직접 그려주는 퍼포먼스를 펼쳐 독자들로 하여금 책의 소장가치를 높여주었고, 판매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朴동문은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환정’으로 월간 ‘순수문학’을 통해, 수필 ‘새들이 떠나가면’으로 격월간 ‘에세이스트’를 통해 등단했다. 1995년 첫 장편 ‘주앙마잘’을 출간했으며 2001년 장편소설 ‘파란비 1·2’를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단편소설 ‘아스팔트’로 제10회 탐미문학상(소설부문) 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계간 ‘서울문학’에 장편소설 ‘파란비 속으로’를 연재 중이다. <폴리곤커뮤니케이션즈刊·값14,000원>

파생금융상품과

기초금융자산

— 李昌馥 지음

ABN AMRO은행 Senior Advisor인 李昌馥(대학원77-79 건국대 겸임교수)동문이 파생금융에

공 연

安晔炡작곡발표회

— 11월 23일 백석아트홀

국악작곡가 安晔炡(국악93-97)동문(사진)이 서울 방배동 백석대 교내 백석아트홀에서 작곡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2005년도 1회 작곡발표회의 ‘만남 그리고 동행’을 시작으로 ‘만남’시리즈의 두 번째로 ‘국악과 서예, 무용, 시의 만남’을 화두로 하고 있다.

관소리, 가곡, 범패, 서예, 무용, 시 등을 이용한 작품 6곡

을 선보일 예정이다.

협스트링앙상블 연주회

— 11월 25일 금호아트홀

현악 앙상블을 사랑하고 아끼는 순수한 음악인들의 모임인 협스트링앙상블(음악감독 李鍾協 기악62-66)이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제26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코렐리, 메르카반테, 바르토크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연주회에는 플루티스트 文緣仙(기악75-79 중앙대 겸임교수)동문이 협연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奇珠熙바이올린독주회

— 11월 27일 성공회 서울성당

바이올리니스트 奇珠熙(기악 82-86)동문이 11월 27일 오후 7시30분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성당에서 바흐, 비버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연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奇동문은 현재 국민대, 중앙대 음악연구소, 수원여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관련된 기초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李동문이 한국은행 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 증권연수원 등에서 파생금융상품론, 위험관리론, 국제금융론, 외환론, 자산부채관리 등을 강의하면서 준비해온 자료와 한국은행에서 외환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작성했다.

금융시장의 구조, 환율과 외환, 금리와 채권에 관한 개념을 정리한 후 금융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를 차례대로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예제를 제시해 파생금융상품의 활용방법 등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울곡출판사刊·값27,000원>

그대 떠난 자리에

별이 뜨고

— 李相起 지음

한겨레신문 스포츠부문 편집장인 李相起(서양사학81-87 본보 논설위원)동문이 기자로 활약하면서 현장을 누비며 만난, ‘나’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생을 바친 56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빛나게 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추모글로 이뤄져 있다. 진

실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언론인, 소신 있는 삶으로 사회를 밝힌 법조인, 끝없는 노력으로 나라의 발전을 일군 기업인, 그리고 자신이 맡은 분야의 최고가 돼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예술인과 체육인 등 사랑과 헌신, 열정과 도전으로 세상을 살다가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1장과 제2장은 4년간 한국기자협회장으로 활동해오다가 2006년 한겨레신문으로 복귀한 저자가 ‘가신 이의 발자취’라는 이름으로 게재한 부음 기사를 엮은 것이다. 제3장은 미리 써놓은 추모글로, 훗날 세상을 떠나서도 빛을 발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깊은강刊·값9,800원>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10월호 22면에 신간으로 소개된 ‘사무엘 올만과 「청춘」’에서 사무엘 올만의 출생지를 프랑스 알사스가 아닌 독일 헤칭겐으로 바로 잡습니다.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8-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통신공학48-56)

△김중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지행

△홍성대(수학57-63)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48-52)

◆2억원

△이중기(경영학69-73)

△장학순(토목공학46-50)

◆1억6천만원

△기계동문회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촌5부자

◆1억1천만원

△수학과동창회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정현(건축학57-61)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성훈(기계공학58-63)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졸)

△안성철(행정학58-63)

·손운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응현(섬유공6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중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보대원동창회

◆9천만원

△곽동현(법학61-65)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엄병윤(외교학60-64)

△화학과동창회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중기(생물교육51-55)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미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윤(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입)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정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3-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재원(상학55-59)

△이중대(천문기상학69졸)

△이중현(경제학59-65)

△이형도(화학공학61-67)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상완(치의학64-70)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일산회 :

김진의(축산학59-65)

△한우리SJM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홍일(영어교육60-64)

△심형운(토목공학52-56)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졸)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문(농공학69-73)

△윤세국(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치불회

◆1천2백만원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신면우(의학50졸)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6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박준옥(약학55-59)

◆1천만원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권동은(I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병민(토목공학55-59)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중서(경제학58-63)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류태환(상학48-54)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종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백사익(경성광전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약56-60)

△성백전(토목공학52-56)

△송명호(자원공학59-65)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상학55-59)

△심이택(화학공학57-63)

△안경상(행정학57졸)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병재(경대원69졸)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운(영어영문50졸)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중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형하(법학74-78)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지준(의학70-77)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정길(금속공학52-56)

△최준기(조선항공57-61)

△표상기(원자력공61-65)

△하영기(정치학44-48)

△함정호(행정학53-57)

△허성길(경제학60-64)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전북지방동창회

◆5백만원

△신박일(약학60-64)

△윤익석(축산학49-53)

△이현구(AMP 52기)

△법대37회 동기회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김영수(법학60-64)

△강홍섭(화학공학59-63)
△고 건(정치학56-60)
△고병우(경제학52-56)
△구재철(의학78-84)
△권광중(법학61-65)
△권순철(전자공학83-85)
△권이혁(의학41-47)
△김교성(전기공학51-55)
△김국일(토목공학63-68)
△김규복(법학69-73)
△김기영(ACAD 49기)
△김노수(섬유공학45-52)
△김덕원(수의학50-54)
△김덕중(외교학71-75)
△김동찬(생물교육51-55)
△김방연(상학52-56)
△김석건(농경제학50-55)
△김연호(영어교육67-75)
△김영기(법학54-58)
△김영수(경제학58-62)
△김영재(법학57-62)
△김용찬(농화학57-61)
△김윤재(상학54-58)
△김익모(AIP 23기)

△김인규(정치학69-73)
△김인중(법학56-60)
△김일환(천문기상64-72)
△김재락(법학78-82)
△김정일(금속공학58-64)
△김주용(전기공학58-63)
△김준말(영어교육55-59)
△김지호(화학공학55-59)
△김진억(법학55-60)
△김진우(약학54-58)
△김태현(제약학71-75)
△김태홍(화학교육71-79)
△김풍오(원자력공68-72)
△김형기(불어교육72-76)
△김혜경(생물교육70-74)
△김호룡(법학48-52)
△김홍종(수학74-78)
△김화중(간호학63-67)
△나노선(약학67-71)
△문광순(광산학60-64)
△문일환(치의학65-71)
△문창극(정치학68-72)
△박국양(의학75-81)
△박석흥(불어불문63-67)
△박성숙(의학65-71)
△박성철(법학75-79)
△박순억(치의학66-72)
△박승균(조선항공63-67)
△박영원(지리학74졸)
△박영철(AMP 40기)
△박인원(의학76-83)
△박재형(의학66-72)
△박종철(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태원(정치학46-50)
△배기선(AIP 25기)
△배상경(경제학56-61)
△배영한(상학49-58)
△변영삼(금속공학77-81)
△변종문(공업교육72-76)
△서광벽(재료공학73-77)
△석준형(물리학67-71)
△송사일(농공학80-84)
△송종환(외교학64-68)
△송호룡(AIC 19기)
△신수정(기약59-63)
△신혜순(가정교육47-51)
△신희명(물리교육49-54)
△심장수(법학70-74)
△심한배(공업화학71-76)
△안치득(전자공학76-80)

△양해준(식품공학82-86)
△염영섭(화학66-70)
△오경화(의류학81-85)
△오복동(법학57-63)
△오세종(경제학61-65)
△오태환(법학53-57)
△우병규(정치학51-55)
△우세홍(생물교육60-65)
△우종호(중어중문60-64)
△우효섭(토목공학72-76)
△유필상(전기공학66-73)
△윤근환(농학50-54)
△윤옥영(수학58-61)
△윤용철(경영학83-88)
△윤용혁(독어교육60-64)
△윤원진(HPM 6기)
△윤재석(화학교육71-75)
△윤홍식(물리교육56-60)
△이경렬(응용미술69-73)
△이경재(화학59-63)
△이광진(법학77-81)
△이근수(신대원69졸)
△이기봉(교육심리54-58)
△이기준(경제학55-59)

△정병일(독어독문78졸)
△정병해(정치학49-53)
△정상조(행정학57-62)
△정소성(불어불문64-69)
△정영채(수의학56-60)
△정완호(생물교육58-63)
△정우식(항공공학80-84)
△정원식(교육학48-54)
△정정길(행정학61-65)
△정흥숙(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무제(사대원65-67)
△조병철(섬유공학59-65)
△조영찬(중어중문74-78)
△조완규(생물학48-52)
△조장환(농학53-60)
△지상구(약학54-58)
△지철근(전기공학45-51)
△진영춘(토목공학67-74)
△진홍일(외교학62-66)
△차원갑(화학공학48-53)
△최동식(법학76-80)
△최명재(상학48입)
△최병순(화학교육69-74)

△신한우(사회교육50-55)
△어 당(섬유공학68-72)
△오진환(법학75-79)
△우경자(가정교육61-65)
△유성삼(기계공학59-65)
△유종상(중어중문66-70)
△유창용(의학84-88)
△윤 백(기계공학78-82)
△윤석용(채광학50-54)
△이민섭(치의학57-61)
△이용팔(HPM 13기)
△이은주(간호학90-94)
△이인재(지질과학64-72)
△이진영(상학55-59)
△이춘배(의학85-89)
△이홍석(농학52-56)
△임상규(금속공학68-72)
△장영일(치의학64-70)
△장희수(AMP 45기)
△정상명(행정학68-72)
△정성호(사법학81-85)
△조달호(AMP 7기)
△조성근(행대원61졸)
△조수호(회화47입)

△류해주(상학65-69)
△문영도(경제학50-59)
△박강문(국어교육63-68)
△박경석(사학55-59)
△박경엽(전기공학75-79)
△박길상(사회학72-76)
△박동우(농공학70-74)
△박우규(토목공학70-75)
△박정수(농공학61-69)
△박현상(법학76-80)
△백운택(영어교육63졸)
△서경석(행정학67-71)
△서옥식(동양사학69-73)
△설재훈(토목공학74-78)
△소병수(사회학76-80)
△손창수(AMP 41기)
△신부길(농화학63-67)
△안소연(공예89-93)
△안재휴(광산학52-56)
△엄정식(신대원71졸)
△연기호(행대원67-70)
△유기수(물리학53-57)
△유기홍(법학58-64)
△유도봉(약학66-74)

◆25만원
△안태준(기계공학83-91)
△이기준(iIP 2기)
◆23만원
△진재관(역사교육79-83)
◆20만원
△강경돈(영어교육70-77)
△강신희(체육교육53-57)
△강효식(치의학57-61)
△고병철(국어교육61-65)
△고정애(제약학87-91)
△곽언구(AMP 34기)
△구월환(사회학60-67)
△권기술(AMP 9기)
△권동환(ALP 2기)
△권중화(ACAD 62기)
△김광순(약학59-63)
△김남용(축산학53-57)
△김동암(축산학52-56)
△김병문(AMPFRI 17기)
△김봉규(영어교육52-56)
△김상구(영어교육60-64)
△김성로(토목공학52-56)
△김용규(경제학78-82)
△김용득(임학71-77)
△김우전(AMP 7기)
△김우진(의학88-92)
△김의식(상대전문46-49)
△김일용(HMP 6기)
△김종호(SGS 4기)
△김창경(역사교육61-65)
△김창근(법학51-55)
△김철진(법학50-58)
△김충섭(약학65졸)
△김통호(건축학70-74)
△노복길(원자력공83-90)
△노승권(사법학84-88)
△노정학(수학교육73-77)
△류종탁(외교학56-61)
△문동민(화학공학57-61)
△문명호(영어영문59-64)
△박병룡(경제학80-84)
△박세운(농생물학76-82)
△박윤희(공법학84-88)
△박응복(수의학48-53)
△박종만(치의학69-75)
△박찬정(건축학73-77)
△박철근(법학55-59)
△배석필(행정학56-62)
△변창훈(건축학70-77)
△사공문(농공학72-79)
△서문원(농학74-79)
△선우종원(법학41졸)
△송창기(중어중문57-62)
△송춘종(농학55-59)
△승익상(의학61-67)
△신희식(토목공학49-55)
△신석우(보대원65-67)
△신희용(교육심리53-57)
△신희룡(농학59-63)
△신희영(화학62-70)
△심재엽(상학63-71)
△안국정(사학63-70)
△안태호(경제학45-53)
△양세련(경제학92-97)
△양홍석(전기공학46-47)
△염신희(HPM 14기)
△오규원(행정학65-69)
△오근영(심리학59-65)
△유봉환(기계공학56-61)
△유석기(경제학57-61)
△유정복(행대원86-88)
△유태환(기계공학66-70)
△유형식(치의학59-65)
△육강화(사회학74-78)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돈구(임학65-69)
△이두현(행대원74졸)
△이병목(의학54-60)
△이삼취(농화학66-70)
△이상욱(경영학86-90)
△이상필(치의학70-76)
△이성호(AIP 32기)
△이영상(상학59-64)
△이용우(공업교육64-68)
△이인혁(섬유공학54-58)
△이일훈(상학55-60)
△이재식(교육학75-79)
△이정우(독어교육64-71)
△이종대(독어독문64졸)
△이종복(응용미술62-66)
△이주한(역사교육53-57)
△이중환(의학51-57)
△이창호(기계공학55-61)
△이철주(상학59-65)
△이충웅(통신공학54-58)
△이태형(상학59-63)
△이학숙(회화54-58)
△이현재(경제학48-53)
△이형균(정치학59-64)
△이호인(응용화학66-70)
△이희숙(영어교육61-65)
△이희호(교육학46-50)
△임광환(농경제학55-59)
△임한조(물리학67-71)
△장권봉(응용미술56-62)
△장성원(영어교육57-61)
△장원갑(기계공학63-67)
△장철식(섬유공학49-55)
△장해창(법학74-78)
△장혜실(성악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전정규(경제학51-56)
△전종갑(천문기상64-68)
△전팔근(영어교육47-52)
△정명희(의학65-71)
△정민섭(임학59-63)

△최종덕(물리학52-56)
△최종운(의학77-83)
△최형순(조선공학65-70)
△함종한(농업교육63-70)
△현천욱(법학72-76)
△홍성오(생물교육50-54)
△홍성완(토목공학62-66)
△홍순겸(AIP 5기)
△황선용(사회교육57-61)
△황성재(법학72-76)
◆60만원
△부영욱(HPM 13기)
△여인철(조선공학75-79)
△이계홍(농공학56-62)
△이범규(물리학69-73)
△이정구(의학59-65)
△이찬구(상학56-61)
△이현구(화학공학58-62)
△최병주(생물교육56-60)
◆50만원
△강승호(수학교육67-71)
△강인식(농공학79-83)
△강일우(섬유공학71-75)
△곽소진(신대원70졸)
△권학창(지구과학69-76)
△김 신(경영학75-79)
△김건중(정치학66-70)
△김봉균(국어교육60-64)
△김세겸(농공학59-63)
△김용주(화학공학73-77)
△김용진(대학원80졸)
△김재현(경제학69-73)
△김정우(상학67-71)
△김진국(정치학78-85)
△류재택(역사교육66-73)
△박남훈(외교학68-75)
△박양제(약학48-52)
△박일재(화학공학78-82)
△신동우(언어학71-75)
△신희택(AMP 48기)
△신희철(기계공학70-78)

△조영욱(가정교육58-62)
△조용철(종교학64-68)
△채경욱(경영학86-90)
△최동수(경영학65-70)
△최순철(치의학73-79)
△최은규(국어교육78-82)
△최현수(전기공학76졸)
△홍석주(경영학72-76)
△황건호(경영학70-74)
◆40만원
△강만식(생물학51-55)
△곽노희(기약81-85)
△연대성(영어교육60-64)
△이병효(공업교육63-67)
△이혜전(기약79-83)
△임재원(국악76-80)
◆30만원
△강창수(조선공학48-53)
△고재홍(자원공학75-82)
△곽영철(농공학59-65)
△구본무(농공학62-66)
△구인환(국어교육50-54)
△금명자(간호학76-80)
△김 랑(농공학63-68)
△김기락(의학68-76)
△김동완(행대원83-88)
△김상원(농경제학52-56)
△김상호(중어중문58-62)
△김세재(동물학85졸)
△김승환(상학67-71)
△김신원(응용화학64-72)
△김영대(SGS 12기)
△김유원(신대원72-74)
△김응진(대학원49졸)
△김정석(공예89-93)
△김주영(사법학83-87)
△김철중(물리학70-74)
△김충식(독어교육60-64)
△김태수(영문학57-64)
△김학근(법학75-79)
△남창렬(화학교육65-69)

△유인광(수의학81-85)
△유정열(기계공학65-69)
△윤영조(기약85-89)
△윤영출(응용미술82-86)
△이건호(농경제학67-72)
△이경형(사회학66-70)
△이광찬(사회학58-62)
△이남우(국제경제82-86)
△이도천(임학55-60)
△이만성(상학64-68)
△이명호(iIP 3기)
△이상훈(법학78-85)
△이승복(기계공학61-65)
△이연자(기약59-63)
△이영기(법학71-75)
△이종완(독어교육72졸)
△이종휘(경영학66-70)
△이전진(수학교육66졸)
△이철근(조선항공58-64)
△이항철(경제학54-58)
△이희근(광산학55-70)
△임수진(ACAD 56기)
△임유철(국제경제84-88)
△임주환(지질과학62-67)
△장낙도(독어독문85-89)
△장성종(축산학58-64)
△전용우(기약78-82)
△정연국(식물학64-68)
△정정환(AIC 11기)
△조성수(의학62-66)
△조효승(경제학84-88)
△주영목(기약71-75)
△전주훈(섬유공학64-68)
△최병덕(물리학55-61)
△최영희(화학61-69)
△최창호(사법학84-88)
△추호석(경영학69-73)
△한동수(의학59-65)
△한동주(응용미술70-74)
△홍순길(외교학61-65)
△황덕연(토목공학60-64)

△이강소(회화61-65)
△이경국(농학78-82)
△이기태(불어교육59-65)
△이동수(사회교육63-67)
△이동일(노어노문85-89)
△이민철(응용화학67-71)
△이반영(중어중문56-61)
△이석우(경제학63-67)
△이승훈(법학80-84)
△이영옥(법학52-56)
△이영운(수학교육58-62)
△이원욱(GLP 11기)
△이유희(가정학64-68)
△이재창(농학57-63)
△이재천(법학52-56)
△이준재(농화학57-63)
△이한동(행정학54-58)
△이형기(행대원70졸)
△이흥탁(영어교육59-64)
△임광순(GLP 7기)
△임병문(토목공학58-64)
△장기남(경제학61-68)
△전남수(농화학54-58)
△전도진(경대원70-72)
△전임효(가정관리81-85)
△정규능(화학공학58-64)
△정규수(물리학63-67)
△정동성(농공학57-63)
△정용권(조선항공58졸)
△정윤용(화학71입)
△정의조(수의학64-68)
△정주섭(영어교육52-57)
△조대승(조선공학81-85)
△조두현(법학49-58)
△진준현(고교미술77-83)
△최 일(대학원72졸)
△최광만(영어교육49-59)
△최길선(조선공학65-69)
△최병완(경제학57-61)
△최성곤(법학78-82)
△최수강(건축학70-77)
△최흥락(경제학57-61)
△한상술(행정학58-64)
△한재민(물리학78-82)
△한정길(농생물학63-70)
△허영섭(지리교육74-78)
△허운욱(철학57-64)
△현소환(정치학57-61)
△현호연(농화학53-57)

△홍계화(상학66-70)
△홍석기(AIC 9기)
△홍성팔(치의학82-88)
△홍종웅(사학65-72)
△황근연(생물교육50-54)
◆15만원
△김명훈(교육학49-58)
△김태영(ACAD 29기)
△박종훈(농공학78-82)
△송창현(사법학88-93)
△신동수(농공학55-61)
△이승운(경영학93-97)
△전동렬(물리교육75-82)
△조 만(건축학56-60)
△조해종(지리교육61-65)
△최돈형(물리교육68-72)
△홍기갑(행정학66-70)
◆12만원
△김정구(농화학84-88)
△윤기숙(기약82-86)
△윤태걸(수의학58-62)
△정대수(신대원61-70)
△정수봉(입학60-65)
△조장호(언어학61-65)
△최근수(법학81-85)
△한홍진(대학원92-94)
◆11만원
△장익상(AMP 25기)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0월 23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10만원
△권안도(화학71-75)
△권오득(사회사업63-68)
△권용관(AMP 58기)
△권용신(사회복지86-94)
△권은민(사법학82-86)
△권대원(전기공학64-68)
△권태진(기계공학71-75)
△권희교(농공학68-75)
△금용일(경제학75-79)
△기준능(경영학80-90)
△김 유(약학60-64)
△김광운(대학원73-78)
△김광현(의학66-72)
△김광희(작곡68-72)
△김국일(사법학86-91)

△김근석(토목공학71-78)
△김금립(약학62-66)
△김기욱(전자공학79-83)
△김길남(의학75졸)
△김길영(ABP 19기)
△김남영(토목공학69-73)
△김남현(상학53-57)
△김대경(농화학51-55)
△김석현(기계설계76-80)
△김선구(경영학73-77)
△김선중(약학61-65)
△김성은(ACAD 30기)
△김성철(공업화학73-79)
△김성철(물리학97-04)
△김소례(교육학54-58)
△김수한(화학64-66)
△김순규(농공학62-69)
△김순신(영어교육51-00)
△김순자(화학62-66)
△김승국(심리학56-60)
△김승영(ACAD 43기)
△김승재(수학교육71-75)
△김억관(체육교육67-71)
△김연곤(공법학85-89)
△김열규(토목공학70-74)
△김영권(경영학80-84)
△김영균(행정학52-56)
△김영렬(경영학79-85)
△김영률(기약76-80)
△김영민(영어영문85-89)
△김영수(사회교육87-91)
△김영일(지리학62-68)
△김영지(독어교육68-72)
△김영창(농공학59-65)
△김영태(응용미술59-66)
△김영호(잠사학65-69)
△김완기(상대전문46-50)
△김용구(기계설계76-82)
△김용구(농학57-61)
△김용근(화학01-05)
△김용기(경제학56-62)
△김용준(치의학53-58)
△김우탁(화학교육57-61)
△김육환(자연과학97-03)
△김원일(공업교육63-67)
△김원주(행정학53-57)
△김윤규(기계공학62-69)
△김인기(AIC 2기)
△김인섭(농공학64-71)

△김일륜(국약79-83)
△김재동(조선공학70-74)
△김재영(불어불문82-86)
△김재우(농공학69-73)
△김재창(전자공학64-69)
△김재호(신문학85-91)
△김흥수(수학57-61)
△김희창(화학공학57-62)
△나귀수(수학교육87-91)
△나양평(사법학86-94)
△남광현(농공학62-66)
△남기민(사회사업69-73)
△남기종(수학교육54졸)
△남혜경(간호학79-83)
△노석준(토목공학76-80)
△노정석(경제학87-93)
△류기락(농업교육81-88)
△류돈희(AMPFRI 3기)
△류제청(행정학68-72)
△류춘호(경제학79-83)
△문동성(독어독문69-73)
△문동신(ACAD 55기)
△문성철(상학54-58)
△문영국(행정학65-69)
△문우택(기계공학57-61)
△문은국(물리학98-05)
△문철한(상학56-60)
△민경식(전기공학50-55)
△민동근(철학46-50)
△민병운(농화학56입)
△민병일(물리학74-78)
△민병찬(보대원75-77)
△민태혁(축산학62-66)
△박경서(독어교육66-70)
△박경석(농화학52-56)
△박경희(응용미술75-79)
△박광표(자원공학47-54)
△박민순(무역학77-81)
△박민철(식물학65-72)
△박병명(법학74-78)
△박병주(의학74-80)
△박봉규(조선공학62-71)
△박부찬(행정학56-60)
△박상균(공법학81-85)
△박상필(불어교육76-81)
△박상홍(농경제학55-59)
△박성민(화학교육70-74)
△박성수(농공학73-80)
△박성희(가정관리73-77)

△박세나(기약90-94)
△박영대(동양화87-92)
△박영일(경제학61-65)
△박옥련(치의학53-57)
△박용섭(농공학73-80)
△박용진(금속공학51-55)
△박우병(광산학52-56)
△박육근(경영학70-74)
△박원진(행정학51-55)
△박유성(불어교육90-95)
△박윤수(정치학47-51)
△박의용(국어교육91-97)
△박인식(교육학48-53)
△박재규(토목공학56-61)
△박재범(섬유교분84-92)
△박정국(의학52-56)
△박종열(대학원71졸)
△박종혁(컴퓨터공학96-01)
△박주현(외교학88-93)
△박준호(경영학96-00)
△박중대(상학49-57)
△박진태(AMPFRI 2기)
△박진환(농경제학48-52)
△박창서(농경제학61-65)
△박창진(보대원70-72)
△박춘배(환대원77-79)
△박헌렬(화학공학67-71)
△박형규(ABP 20기)
△박형준(국어교육64졸)
△박효순(기약64-68)
△박훈기(경영학81-86)
△방기범(기계설계84-88)
△방덕환(의학53-59)
△방성호(의학66-72)
△배기룡(SGS 4기)
△배용찬(지질과학61-65)
△배정길(농공학61-67)
△배종섭(경제학58-63)
△배찬린(법학58-63)
△배호순(교육학67-74)
△백선욱(기계공학62-66)
△백선호(치의학73-79)
△백승우(작곡82-86)
△사공일(상학58-64)
△서광석(정치학51-55)
△서덕모(법학73-77)
△서승원(상학53-57)
△서완수(농경제학58-64)
△서재영(화학71-75)

△서택동(농공학73-80)
△석관수(지질과학84-88)
△석기병(화학85-91)
△선종승(경영학71-75)
△설원태(영어교육77-83)
△성낙현(응용화학71-75)
△성명훈(의학76-82)
△소병철(법학78-82)
△손낙철(화학교육49-53)
△손두식(입학57-63)
△손수일(국어교육48-55)
△손신명(무역학78-82)
△손은신(디자인학82-91)
△송기형(경영학76-80)
△송동수(체육교육67-71)
△송몽채(영어교육67-71)
△송민호(국민윤리01-04)
△송범호(수학교육81-85)
△송세광(APC 3기)
△송영호(치의학57-61)
△송완근(섬유공학53-58)
△송지현(불어불문83-87)
△송창진(약학54-58)
△신덕철(기계공학68-72)
△신동소(입학53-57)
△신명자(생물교육56-60)
△신순우(행대원74졸)
△신윤하(공업교육63-68)
△원상희(의학75-81)
△유영채(체육교육70-74)
△이광선(농생물학57-63)
△이상희(미생물학81-88)
△이승훈(인류학74-78)
△정성배(국어교육74-81)
△정세용(철학72-76)
△정희원(영어영문95-99)
△조주태(ACAD 14기)
△최명선(AIC 3기)
△최은석(경영학85-89)
△한기철(수학57-62)

〈이상 2007년 9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은 지면관계로 다음호에 게재합니다〉